

일정표

시간	내용	
사회 : 김동배 교수(연세대학교) Prof. Emeritus Kim Dong-Bae(Yonsei University)		
13:30~14:00	독일 사례	Case Study 1. “가난한 사람을 위한 디아코니아” - 헨리 폰 보제(독일 개신교선교연대 이사, 전 기독교사회봉사국 공동대표) Rev. Dr Henry von Bose(Evangelical Mission in Solidarity)
14:00~14:30	네덜란드 사례	Case Study 2. “공평한 세계를 향하여” - 에버트 잔 하젤레거(네덜란드 개신교회 행동하는 교회 국장) Mr. Evert Jan Hazeleger(CHurch in Action)
14:30~15:00	스웨덴 사례	Case Study 3. “스웨덴교회의 디아코니아 사역” - 닌니 스메드버그(발스타 디아코니아센터 원장) Ms. Ninni Smedberg(Vårsta Diaconal Centre)
15:00~15:20	휴식	
15:20~15:50	중국 사례	Case Study 4. “사랑의 행동 - 애덕기금회 활동” - 자오 징웬(중국 애덕기금회 국장) Ms. Zhao Jingwen(Helen) (The Amity Foundation)
15:50~16:20	쿠바 사례	Case Study 5. “가난 극복을 위한 디아코니아 능력개발” - 칼로스 에밀리오 햄(마탄자스 개신교신학대학 총장, 쿠바 디아코니아 학회) Rev. Dr Carlos Emilio Ham(Theological Evangelical Seminary in Matanzas)
16:20~17:00	질의/응답 Q&A	

목차

독일	
Case Study 1. “가난한 사람을 위한 디아코니아” - 헨리 폰 보제(독일 개신교선교연대 이사, 전 기독교사회봉사국 공동대표) Rev. Dr Henry von Bose(Evangelical Mission in Solidarity)	4
네덜란드	
Case Study 2. “공평한 세계를 향하여” - 에버트 잔 하젤레거(네덜란드 개신교회 행동하는 교회 국장) Mr. Evert Jan Hazeleger(CHurch in Action)	10
스웨덴	
Case Study 3. “스웨덴교회의 디아코니아 사역” - 닌니 스메드버그(발스타 디아코니아센터 원장) Ms. Ninni Smedberg(Vårsta Diaconal Centre)	19
중국	
Case Study 4. “사랑의 행동 - 애덕기금회 활동” - 자오 징웬(중국 애덕기금회 국장) Ms. Zhao Jingwen(Helen) (The Amity Foundation)	28
쿠바	
Case Study 5. “가난 극복을 위한 디아코니아 능력개발” - 칼로스 에밀리오 햄(마탄자스 개신교신학대학 총장, 쿠바 디아코니아 학회) Rev. Dr Carlos Emilio Ham(Theological Evangelical Seminary in Matanzas)	34
질의응답	

가난한 사람을 위한 디아코니아

헨리 폰 보제(독일 개신교선교연대 이사, 전 기독교사회봉사국 공동대표)
Rev. Dr Henry von Bose(Evangelical Mission in Solidarity)

1. 뷔르템베르크(Wuerttemberg) 지역 개신교회의 사회봉사 활동

모든 디아코니아(Diakonia) 사역은 개신교 신앙에 기초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본받으려고 노력한다. 디아코니아는 인간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에 기초하여 다른 사람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킨다. 이런 관점에는 모든 인간이 연약하며 사랑과 용서가 필요하다는 신념이 포함된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디아코니아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실제적인 도움과 법률적인 도움을 비롯한 매우 다양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다. 디아코니아 사역은 일반적으로 사역자의 주거지역 인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디아코니아가 독일 남서부에 위치한 뷔르템베르크 지역 전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디아코니아 네트워크가 구축된 덕분에 뷔르템베르크 지역의 다양한 봉사 활동과 봉사 기관들이 서로 긴밀하고 훌륭하게 협력한다.

4만 명 이상이 뷔르템베르크 지역 디아코니아에서 사역하는데 2천 개 이상의 봉사 활동과 봉사 기관에서 일한다. 그 외에도 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디아코니아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 개신교사회봉사국(Social Welfare Service of the Protestant Churches)은 뷔르템베르크 개신교에 소속된 모든 사회봉사 기관과 단체를 포괄하는 연합체이다. 침례교회와 감리교회 역시 이 기관 소속이다. 사회봉사국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핵심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사회봉사국은 교회의 모든 사회봉사 활동을 대신 수행한다. 따라서 사회봉사국의 과제는 디아코니아의 사명과 과업을 실천하여 교회 공동체를 지원하는 것이다. 사회봉사국은 모든 교회 구성원을 대신하여 성도들의 디아코니아 사역과 봉사 단체를 지원한다. 아울러 교회 구성원들에게 이익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펼치며, 독일 정치계나 교계에서 이런 문제를 대변한다.

복지 서비스 기관인 사회봉사국은 독일정부의 파트너로서 복지국가의 요구조건과 필요 사항에 관한 문제를 조인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기관으로서 사회봉사국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정치적, 사회적 약자, 특히 차별받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봉사국은 가난과 차별의 사회적 원인과 싸우고 사회 정의를 위해 노력한다.

뷔르템베르크의 디아코니아는 27만 명 이상을 돌보고 지원한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디아코니아 봉사기관이 운영하는 집에서 산다. 디아코니아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장애인 복지, 환우 돌봄, 노인 돌봄, 실업자 지원, 노숙자 지원, 과다채무자 지원, 극빈자 지원, 약물중독자 지원, 위기에 처한 사람을 위한 지원, 이민자와 난민과 망명자 지원, 특히 차별을 받는 사람을 위한 지원, 고통을 당하는 소녀와 여성을 위한 지원. 디아코니아는 입원환자 서비스와 외래환자 서비스, 주간 돌봄 서비스, 개별 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

디아코니아는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를 창출한다. 디아코니아의 “고용 회사”는 공적인 지원을 받아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들이다. 이 회사들은 실업자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자격을 제공하고 민간 기업들과 협력하여 정규직으로 이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장기 실업자들에게 직업적 통합을 제공한다. 디아코니아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 쇼핑센터를 제공한다.

디아코니아는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와 직업 훈련기관을 운영한다. 예전 독일이 징병제를 시행하던 시기에 디아코니아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했다. 그들은 법적으로 규정된 시간 동안 군복무 대신 사회봉사 활동을 할 기회를 얻었다.

최근 많은 청년들이 학교 졸업 후 직업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한 해 동안 자발적인 사회봉사 활동을 한다.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수행하는 광범위한 자원봉사는 디아코니아의 뛰어난 수준을 보여준다. 자원봉사자들은 교회나 디아코니아 봉사단체의 광고를 보고 참여한다. 그들은 봉사활동에 대한 소개를 받고 일하게 된다. 그들은 개인보험과 사고보험, 지출 경비(집에서 자원봉사 활동 장소로 오고가는 교통비)와 훈련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그들은 자원봉사자 동료들과 전문적인 직원들과 정기회의를 갖는다. 자원봉사자의 사회봉사는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며 전문직업인이 되는 과정으로 환영받는다. 그들은 사회의 문화에 크게 기여한다.

국제적 과제

뷔르템베르크의 디아코니아는 독일 개신교 디아코니아 및 개발 기관(The Protestant Agency for Diakonia and Development of Germany's Protestant churches)의 회원이다. 이 기관은 개신교 개발 서비스인 “세상을 위한 떡”(Bread for the World)과 “응급 지원”(Emergency Aid)이라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선교를 펼친다. “응급 지원”은 위기에 처한 전 세계 재난 지역에 응급 서비스와 구호를 제공한다. “세상을 위한 떡”은 개발 및 구호 단체로 장기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전 세계의 90개 이상의 국가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이 생활 여건을 개선하도록 도와준다.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특징은 종종 교회와 관련된 파트너 지역 기관들과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이다. “세상을 위한 떡”은 그들이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가와 봉사자를 제공한다. “세상을 위한 떡”은 전 세계 응급 구호 및 개발 지원을 위한 최대 연대조직인 교회행동연대(Action by Churches Together)의

회원이다. 매년 크리스마스 때 독일 개신교회가 드린 모든 헌금은 “세상을 위한 떡”에 전달된다. 그 액수는 매년 약 6천만 유로(약 761억6천만원)에 달한다.

재원조달 방법

자체 재원과 사회보장 기금 : 디아코니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많은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며 수혜자들이 직접 돈을 지불하도록 한다. 독일 사회보험은 이러한 지출의 일부를 부담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의 부담을 일부 들어준다. 예를 들어, 노인요양원이나 노인 환자의 집에서 집중치료를 할 경우 독일 건강보험에서 의무적으로 일부 비용을 부담한다. 독일 사회보장은 디아코니아가 운영하는 재활 치료나 재활 병원의 재정에 도움을 준다. 독일 연방고용사무소는 디아코니아가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공적기금의 보조금: 지출 비용의 일부는 공적 기금(연방 정부, 주 정부, 시 정부)에서 지원된다. 예를 들어 주 정부는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거나, 임신문제(낙태와 관련하여) 고민하는 여성을 지원하는 비용을 일부 지불한다. 시 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통합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며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질병이 있는 사람들 또는 심각한 채무를 진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추가로 제공한다.

교회세 : 독일 개신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교회세를 납부해야 한다(독일 국세청이 대신 징수한다). 이 세금은 교회 구성원의 수입 또는 월급에 따라 징수한다. 대다수의 상담 서비스와 디아코니아 지역 서비스 창구는 교회세로 운영된다. 주간 아동탁아센터는 교회세에서 보조금을 받는다. 아울러, 구소련 이민자, 외국인, 난민을 위한 지원도 교회세로부터 재원이 조달된다.

기부 : 기부를 통한 재원조달 방식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디아코니아는 기부 덕분에 정당하게 도움을 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들, 아무도 책임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른바 “음식 교회”(Vesperkirchen)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를 하고 무료로 의료지원을 받는다. 또는 특별 상점에서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구입할 수 있다. 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은 정부당국을 통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기부가 없다면 독일과 해외 지역에서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지원할 수 없을 것이다.

2. 사랑과 정의

지금까지 독일의 디아코니아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이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해온 결과이다. 잠시 회고하고자 한다. 내가 1994년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대한예수장로회(통합)로부터 초청을 받아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문제를 토론했다. 그 토론회에서 한국 교회와 독일 교회의 사회봉사 활동을 서로 공유했다. 성경에서 디아코니아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디아코니아는 교회 회중의 삶과 교회조직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교회가 사회봉사를 감당하려면 어떤 조직이 필요한가?

그 당시 독일과 유럽의 교회 역시 그런 질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1996년 두 번째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일장신대 디아코니아 연구소 개소식에 초대받았다. 우리는 1994년 슬로바키아의 수도 브라티슬라바에 열린 유럽교회 콘퍼런스에서 발표된 선언문 “유럽 디아코니아의 비전을 향하여”를 소개했다. 이렇게 하여 한국인 친구들도 거대한 디아코니아 운동을 함께 하게 되었다. 우리의 목적은 교회 내에서 디아코니아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브라티슬라바 선언문에서 한 구절을 인용해보겠다. “디아코니아는 예배를 일상생활로 확장하는 것이다.” 주일에 신앙을 선포하고 경축하는 것은 교회 구성원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주중에 복음이 진리임을 증명하며, 따라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 이것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들은 선포된 복음을 듣고 “아멘”이라고 말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한다. 성령님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도록 도와주신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썼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5:6). 믿음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준다. 따라서 디아코니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힘을 얻는다. 교회의 사회봉사는 항상 사랑을 통한 믿음의 증인되기 위해 성령님의 도움에 의지한다. 이것이 진정한 디아코니아다.

이런 맥락에서 브라티슬라바 선언은 계속된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부분인 디아코니아는 가난과 실업과 고립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신념으로 실행된다.” 동시에 독일복음교회협의회(Council of the Evangelical Church in Germany)와 독일 주교 콘퍼런스가 “연대와 정의에 기초한 미래를 위하여”라는 선언문을 준비했다. 이 선언문은 1994년부터 교회와 교회 회중들 간의 계속된 폭넓은 협의 과정을 거쳐 1997년에 발표되었다. 발표자인 독일교회 최고 대표자들은 슬픔에 빠졌다. “전통적인 사회 문화는 탈산업화와 도시화 때문에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분열되었다. 물질적 욕구와 이기심이 증가하여 연대와 사회적 통합을 위협하고 있다. 인간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와 성경의 메시지와 기독교적 사회윤리에 의해 기초하고 힘을 얻는 교회는 사회에 필요한 방향을 재설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교회의 관심사는 인간적이고 자유롭고 공정하며, 연대에 기초한 공적, 사회적 질서의 기초와 관점들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것은 연대와 정의에 기초해 미래를 세우려는 공동의 노력으로 이어진다. 교회는 세부적인 정치적 또는 경제적 권고안을 제공하는 것을 자신의 과제로 보지 않는다. 교회의 주요 과제와 능력은 어떤 것이 더 많은 평등과 공공선이라는 대의를 달성하는지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대와 정의는 최근 사람들로부터 그다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개인의 이기심이 사회집단의 일반적인 성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공공선보다 앞세운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규제하는 정의의 개념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이런 상황은 교회와 기독교인에게 큰 도전이다. 연대와 정의는 성경적 윤리와 기독교적 윤리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선언문의 두 가지 내용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이 선언문은 교회가 정당이 아님을 강조한다. “교회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려고 하지 않는다. 교회는 특히 스스로 자신의 요구를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 정치적 계획에서 쉽게 잊혀지는 사람들-가난한 사람, 불우하고 힘이 없는 사람, 미래 세대, 말 못하는 피조물-을 옹호하는 일에 헌신한다. 교회는 이런 방식을 통해 정치 현상이 연대와 정의에 의해 움직이기를 원한다.”

둘째, “성경적 전통과 기독교 전통 속에 있는 교회는 과거에 그랬듯이 미래에도 풍요로운 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귀한 보물을 갖고 있다. 교회는 사랑의 문화를 대변한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건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가지 명령의 성경적 기초다.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주목하는 것은 모든 문화의 필수 조건이다. 성경적 의미에서 사랑은 순간적이고 우발적인 감정이 아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랑이 확고한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사랑은 정의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가난한 사람들과의 연대를 주장하고 사랑의 문화를 대변하는 일은 예전부터 독일의 교회와 디아코니아의 모범적인 활동이다.

3. 포용과 참여

풍요로운 독일 사회에서 가난이라는 주제는 여전히 대단히 금기시 되지만 가난의 존재를 무시하지는 않는다. 우선적으로 두 가지 특별한 문제가 있다. 아동이 빈곤에 빠질 위험이 보통 수준을 넘어섰고 빈곤 한계선에 놓인 아동들은 다양한 형태의 지속적인 결핍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어 더 우려스럽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난을 숨긴다. 예를 들어 그들은 공적인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수치심과 지식 부족, 정부 당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원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것을 이른바 “숨겨진 가난”이라고 한다.

이웃에 대한 기독교적 사랑은 일차적으로 가난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불우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선택이 행동의 기준이 된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생활 개선 활동과 법과 정의의 시행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충실함을 나타내는 표지다. 가난한 사람과의 만남과 화해, 그들과의 연대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된다. 1997년 독일교회 선언문은 다음 내용을 강조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성경적 선택의 목표는 배제를 극복하고 모든 사람을 사회생활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의심과 차별로부터 보호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디아코니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공정한 참여라는 개념으로 이어질 것이다. 독일과 같이 풍요로운 선진국에서 소득 측면에서 극빈자(사회적 지원혜택 수준 이하의 소득)와 불충분한 사회참여라는 의미에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더 나아가 사회에서 배척받은 사람들을 제대로 돌보는 것은 윤리적인 의무다. 이 개념은 모든 사람들이 교육과 훈련, 경제활동, 사회보장, 다른 형태의 연대에 포괄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뜻한다. 참여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공유한다는 점에 뿌리박고 있다—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다.

성경은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을 강조하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상징을 사용하여(예를 들어 고전 12장) 각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확신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각 개인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 앞에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선물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공정한 사회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재능을 발견하여 개발하고 그것을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생산적으로 사용하게 해야 한다. 오늘날의 경제체제와 관련시켜 보면, 이것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분명히 공정한 참여라는 개념은 단지 사회의 몇몇 영역으로만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이 개념은 정기적으로 신중하게 재검토 되어야 하며 현대 세계에서 실제적인 행동의 측면에서 재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2006년 독일복음교회협의회는 “공정한 참여: 개인의 책임과 연대를 위한 능력 개발”이라는 독일지역의 빈곤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주장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교회 사역과 디아코니아 사역이 빈곤문제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포용과 참여의 정신은 2014년 이후 독일 교회의 새로운 중심 주제다. 디아코니아 개발의 다음 단계 목표는 빈곤을 줄이는 것이다. 가난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원의 결핍이다. 독일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계속 가난하게 살아가며 가난한 가정은 흔히 다음 세대로 가난이 대물림 된다. 특히 이민자 가정이 그렇다. 따라서 이것은 도전적인 사회정책 과제이며 사회 전체의 과제이기도 하다. 특히 교회와 디아코니아는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들이 어린 시절부터 필요한 도움을 받아 공평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나와 아내가 사는 튀빙겐 시의 고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과 미성년자들은 이른바 킨더카드(KinderCard)를 무료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받아 실외 수영장, 극장, 휴가여행, 스포츠클럽, 음악 레슨, 외국어 교육, 개인 레슨을 이용할 수 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잠 22:9)

공평한 세계를 향하여

에버트 잔 하젤레거(네덜란드 개신교회 행동하는 교회 국장)
Mr. Evert Jan Hazeleger (Church in Action)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아와 이르되 이 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마 14:15-16).

서론

본 발제를 통하여 발제자는 다음과 같은 핵심 물음들을 따라갈 것이다.

- 교회를 기반으로하는 섬김의 조직으로서 행동하는 교회(Kerk in Actie)의 주요 활동들은 무엇인가?
- 지역 교회들과 그리고 지구적 네트워크와 그 활동들을 위해 어떻게 협조하고 있는가?
- 지역 교회들과 그 외 재원들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가?
- 지역교회의 자원봉사자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관리하고 있는가?

본 발제자는 “컬크 인 악티”(Kerk in Actie, “행동하는 교회” 혹은 Church in Action)의 프로그램 담당자로서 거의 6년 째 일하고 있다. 그 이전에는 Kerk in Actie의 가정 분과 최고담당자였다. 그 이전에 본인은 교회 청년 직원이었다고 그리고 ‘네덜란드 개신교회’(즉 PCN, Protestant Church in Netherlands)의 청소년 분과장이었다. 올해까지 본인은 ‘개신교회’에서 24년간 일하고 있다. 디아코니아 국제 컨퍼런스에 초청받아 ‘섬기는 사람’(deacon)으로서의 나의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이 경험나누기를 네덜란드라는 상황 속에서 국제적 시각을 가지고 시도할 것이다.

네덜란드 개신교회의 행동하는 교회(Kerk in Actie)와 주요 활동들

약 180만의 신자들과 1,600 개의 지역교회 회중들로 구성된 ‘네덜란드 개신교회’는 네덜란드 사회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우리 네덜란드 개신교회는 지역적이고, 국가적이고, 유럽적이고 그리고 지구적인 수준에서 범 세계적인 기독교 연합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를 이룬다.

네덜란드 개신교회의 지역교회 회중들은 지역적 수준에서 자신들의 선교와 섬김 사역(diaconal work)을 담당하고 있다.

행동하는 교회(Kerk in Actie) 프로그램은 네덜란드 개신교회 내 선교와 섬김의 사역을 담당하는 전문 목회를 가리킨다. 따라서 행동하는 교회는 네덜란드 개신교회의 섬김 사역 조직의 일부이다. 우리는 선교와 섬김의 사역을 수행하는 일에서 지역 회중들을 후원하고, 국가적이고 지구적인 수준에서 네덜란드 개신교회를 대신하여 일한다. 지구적 수준에서 ‘행동하는 교회’는 ICCO 즉 네덜란드 기독교 개발 조직과 함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일한다. 이 조직은 50년 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개발 사업을 위한 기금을 받아 설립되었다.

‘행동하는 교회’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돌보는데, 이는 빈곤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면서 보다 의로운 세계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각 사람은 신앙, 정치적 신념, 인종, 성 혹은 국적에 상관없이 존중받아야 할 권리와 존엄한 실존의 권리를 갖고 있다. ‘행동하는 교회’는 기독교적 정체성에 근거하여 이 권리들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일하고 있다. ‘행동하는 교회’의 활동은 증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추구하도록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고자 노력한다.

이 봉사 전통의 목적과 방향성은 우리의 핵심 가치들 속에 담겨있다: 사랑, 정의 그리고 청지기 정신.

‘행동하는 교회’의 주요 특징들

기독교적 가치들

청지기 정신의 초점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창출하는 것과 전체 피조세계의 보호와 보존에 있다; 사랑의 초점은 사회의 균열들이 있는 곳마다 참석하여, 가장 취약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과 빈곤의 근절에 있다; 정의의 초점은 보다 의로운 세상을 구현하는 것과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재정적 그리고 사회적 구조 속에서 세 가지 핵심 가치들을 실행하는 것이다.

섬기는 사람들(diaconate)은 생명의 온전한 존재됨(well-being)과 충만함을 위해 사랑의 고전적인 7 가지 활동을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방식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며, 복반구 뿐만 아니라 지구촌 남반구를 위한 일관된 일정을 운영 중에 있다.

기독교 국제 네트워크의 구성원

‘행동하는 교회’(Kerk in Actie)는 기독교 국제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이 네트워크는 (개신교 기독교인) 교회들

과 종교 단체들 그리고 기독교 연합 단체들 특별히 세계교회협의회와 액트 얼라이언스와 연합된 단체들을 포함한다. 우리 단체는 이 네트워크에 소속된 단체들과 협조하는 일에 우선한다.

이 네트워크의 강점은 전 세계적으로 작은 마을 단위들로부터 확장되어 있어서, 다중적 단체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까지 손이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네트워크 내 신앙의 회중들은 동역하고 있는 회중들과 직접 관계할 수 있는데, 대개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를 함께 협력한다. 이 동역자 네트워크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는 기독교 연합 운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며, 단지 프로젝트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것보다 깊은 관계이다. ‘행동하는 교회’는 지구촌 북반구로부터 지구촌 남반구로 최대한의 기금 후원을 독려하는 일만을 최우선으로 삼는 또 다른 개발기구가 아니다. 행동하는 교회는 전 세계의 사람들을 연결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동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동역자 관계

행동하는 교회는 단지 기금제공 단체나 기증 단체가 아니라, 네덜란드 개신교회의 선교와 섬김 활동이다. 행동하는 교회는 동역자의 눈으로 교회들과 그리고 지역교회들에서 핵심적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연관 단체들과 함께 일한다. 전략적인 목적들과 목표들은 동역자들과 함께 정해 나아간다. 이 과정에서 동역자 컨퍼런스와 대륙별 사무소(the Regional Office)는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한다.

설정된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해, 행동하는 교회는 동일한 목표들을 공유하는 다른 단체들과 그리고 지역 집단들 및 (풀뿌리) 운동들과 함께 협력하기를 도모한다.

우리는 동역자로 신뢰와 인정을 받기 원하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민감한 분야에서 그리고 사회의 균열들이 일어나고 단기간에 변화가 일어나기 어려운 복잡한 상황들에서 물러나지 않고 참여하기를 원한다. 우리 지역 동역자들의 네트워크가 우리가 거기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있다.

상호적 동역자 관계

평등에 대한 인식, 비판적 대화의 필연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동일한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는 다양한 동역자들과 활동가들과 더불어 공유된 책임감으로 일하고 생각해야 할 필연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상호적 동역자 관계(partnership with reciprocity)는 우리의 활동에 본질적이다. 우리는 프로그램들 속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네덜란드의 지역 회중들의 후원을 통하여 우리는 교환 프로그램과 청소년 여행 프로그램들처럼 직접적인 참여를 독려한다. 이는 교회로서 선교와 섬김 사역 사역에 부름받은 소명을 이해하고 살아가는데 중요하다. 이는 우리의 동역자들과 협력하고 있는 개신교회 회중들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이 사역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후원할 의지를 창출한다.

소통

행동하는 교회는 (네덜란드) 개신교회와 그 회중들의 명령에 따라 일한다. 그러므로 지역 회중들이 그 활동에서 자신들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기본 조건은 원활한 소통이다. 우리는 또한 교회 바깥의 사

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관심을 유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세계에 대한 봉사’ 속에서 기독교적 정신을 세우기 원하지만 그러나 교회와는 공식적 연결을 갖기 원하지 않은 이들을 우리는 겨냥한다. 문제는 네덜란드 사회에 우리의 가치와 고유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양한 캠페인들 속에서 우리는 교인들과 보다 광의의 네덜란드 대중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춘다. 우리의 활동에 그들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우리의 활동에 기여할 것을 요청한다. 이는 의식을 일깨우는 일과 기금을 모금하는 활동을 결합하는 일이다. 지역 회중들 다수는 이 캠페인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협동

‘행동하는 교회’는 개신교적 배경과 비전을 갖고 있는 ICCO¹⁾이다. 이 협의회는 ‘Edukans,’ ‘Kerk in Actie,’ 그리고 Prisma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들이 존엄성과 온전한 존재됨(well-being)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빈곤과 부정의가 없는 세상을 위하여 일한다. 이 협의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http://www.icco-international.com> 를 참고할 것. 와 다른 단체들과 협동하고 있다. 해외 사업의 실행은 합동 대륙별 사무소들과 ICCO와 ‘행동하는 교회’의 국제분과에서 이루어진다.

행동하는 교회와 ICCO는 상호적 기구로서, 서로를 강화하고, 서로의 프로필을 인정한다. 프로그램 개발과 프로그램 실행에는 하나의 연합된 접근방식이 존재한다. 세계 봉사 활동에서 이것은 무엇보다도 사회-문화적, 경제적,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요소들 간의 연관성에 주의를 기울이며, 빈곤 감소와 빈곤 퇴출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금조성 활동에서 ICCO는 공적 기금들, 다른 투자자들과의 공적 관계들, 사업 접근권 그리고 그 외 다른 익명 기부들을 통해 기여한다. ‘행동하는 교회’는 기본적으로 ‘개인 기부’와 네덜란드 개신교회 교단의 지역교회 회중들의 기부금을 목표로 한다. 연 예산은 2천4백만 유로(약 304억 7천만원)이다. 이중 40퍼센트는 지역교회들로부터, 40퍼센트는 개인 기부자들로부터, 그리고 나머지 20퍼센트는 민간 자본 재단으로부터 들어온다. 이 예산을 가지고, 네덜란드 국내를 포함한 40개 지역에서 사역한다.

‘행동하는 교회’의 수입이 지난 몇 년 간 압박을 받아왔기 때문에(구체적으로는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연 5%의 수입이 감소해 왔기 때문에), 개인 기부자들로부터 들어오는 수입뿐만 아니라 개신교회 회중들로부터 들어오는 기부금 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별 기부자들로부터의 기부금이 약간 늘어날 수 있었다. 이 밖에 섬기는 사람들의 활동을 위한 기금 조성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회중들과 함께 일할 계획들을 개발해 왔다.

기금조성 정책: 재단의 분명한 이야기를 개발하다

나누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는 함께 ‘행동하는 교회’를 구성한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서로 함께 나누기 위

1) [역자] ICCO는 개발협력을 위한 교회간 협의회(the interchurch cooperative for development cooperation)이다. 이 협의회는 ‘Edukans,’ ‘Kerk in Actie,’ 그리고 Prisma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들이 존엄성과 온전한 존재됨(well-being)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빈곤과 부정의가 없는 세상을 위하여 일한다. 이 협의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http://www.icco-international.com> 를 참고할 것.

해서라고 믿는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동하는 교회’(church in action)를 체현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우리의 활동은 예수의 이야기에서 특별히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이야기에서 영감과 감동을 얻는다. 예수는 거기서 음식을 축복하고 무리들 가운데 나누었다—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음식이 거기에 있었다.

우리의 부르심: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기 위한 소명.

우리는 행동하는 개신교회(the Protestant church in action)이다.

- 약 2백만 명의 구성원들과 1,600개가 넘는 지역교회 회중들은 도처의 동료 인간들을 위해 활동한다.
-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다. 모두 환영받는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과부와 고아들, 죄인들과 난민들을 돌보라는 성서의 부르심에 영감과 감동을 받는다. ‘행동하는 교회’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 빈곤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헌신하면서 보다 의로운 세계를 꿈꾼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고 믿는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이 몸은 부적합할 이유가 없다: 이 몸은 눈들과 귀들, 그리고 손들과 발들을 갖고 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고유한 방식으로 이 몸의 일부이다: 다르지만, 그러나 언제나 평등하다.

교회는 모든 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로테르담 중심부로부터—우간다의 외딴 마을들의 난민들을 돕고—내부적으로 추방된 사람들을 돕는다. 어디에서나 사람들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믿고, 팔을 벌려 난민들을 환영하고, 곤궁에 처한 어린이들을 위해 일어나고, 소수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배제된 사람들을 품는다.

이 재단의 분명한 이야기는 기부자들과 교회 구성원들에게 우리가 보다 가시적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행동하는 교회’의 모든 직원들은 이 이야기를 공유하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우리의 투자자들과 동역자들 그리고 기부자들에게 이야기하도록 훈련받는다.

주인정신 그리고 지역교회 회중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행동하는 교회’는 네덜란드 사회 속에 강건한 기반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 활동을 수행해 나갈 수 없었을 것이다. ‘행동하는 교회’는 네덜란드 개신교회(PCN)의 지역 교구들을 위해 그리고 그 교구들로부터 일한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는 지역 기금조성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협동에 의해 표현된다. 또한 늘어나고 있는 ‘행동하는 교회’의 기부자들과 관계가 강화되고 있다. 우리는 기부자 그룹들과 다수의 패널 토론을 열었다. 그 연구의 결론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부자들과 지역 회중들과 함께 결속관계를 다지는데 활용되었다.

“변화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벌어진 40일 사순절 캠페인은 성공적이었다. 이 캠페인은 네덜란드 개신교회

1,100개 이상의 교회들과 더불어 수행되었다. 매년 보다 더 많은 수의 회중들이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이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우리는 기금조성을 위한 주제들을 만들고, 우리의 활동에 대한 배경정보를 만들고 그리고 매주 우리 동역자들을 위한 주간으로 정해 발표한다. 매년 새로운 주제들이 선정된다.

120회 전국 섬김이들의 날(National Diaconal Day)은 “섬기는 사람(Diaconate)을 향한 마음”을 주제로 정했다. 이는 섬기는 사역의 투입과 범세계적인 도전들 간의 결속력에 대한 것이었다. 1천명 이상의 섬기는 사람들(deacons)이 그날 참석했다. 이 날은 1891년 이래로 거의 매년 열렸다. 이날은 영감을 얻고, 경험들을 공유하는데 중요한 날이다.

조직: 세 분과의 활동

- 네덜란드 개신교회(PCN)의 1,600 교회회중들이 벌인 섬기는 사역의 지지를 위한 본부(3 mln), 행동하는 교회의 선교사역과 범세계적인 동역자 교회들과 단체들의 선교 사역의 후원을 위한 선교부(10mln)
- 범세계적 섬김이 프로그램은 ICCO 협동의 일부이며,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대륙별 사무소에서 제공한다 ([인도주의적 도움을 포함하여] 11mln).

행동하는 교회의 활동영역들

- 박해에 대항하는 믿음—소수자 교회들을 후원하기—신앙 공동체들 사이에 가교를 구축하기
- 지역 신앙 공동체들의 능력에 대한 믿음 (음식과 경제적 역량, 지역 섬김이자 사역을 후원하기).
- 재난들 이전과 재난 와중에 그리고 재난 이후의 긴급구호 (DM).
- 이주, 난민들에 대한 법률적 도움, 통로와 대피처를 마련하기, 인신매매와 싸우기
- 위기에 처한 아이들—유년 노동과 싸우기, 아동권을 강화하기

본부의 일

여러분은 여기에 네덜란드의 섬기는 사역을 알기위해 있다. 따라서 네덜란드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 보다 더 초점을 두고자 한다. 다음은 우리가 네덜란드에서 하고 있는 섬기는 사역의 주제들이다.

- 빈곤 퇴치: 선언, 지역 후원, 부서들(depts)과 함께 사람들을 돕기.
- 난민들: 인도주의적 지원들, 지역 회중들에게 조언하기, 최고의 실천들을 보여주기
- 지속가능성: 교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삶의 모습과 실천을 촉진하기 (녹색 교회)
- 사회복지사업 : 지방정부들에 대한 지지, 돌보고 지원하는 공동체로서 교회

- 지역의 섬기는 사업을 위한 후원 : 훌륭한 모범들, 훈련 프로그램들, 시험 프로젝트(pilot project), 소식지, 섬기는 이들을 위한 잡지, 직무 훈련, 맞춤형 조인, 컨퍼런스, 이-러닝 프로그램들

네덜란드에서 우리는 지역의 섬기는 사역과 보다 많은 접촉들을 시도해 왔고, 보다 많은 후원을 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 사역의 초점들은 지역 차원에서 빈곤과 싸우는 것, 섬기는 사람들을 후원하는 것, 섬기는 사역의 주체로서 지속가능성을 주목하고, 인도적인 보호처 정책을 지지하는 것 등이었다. 성공적으로 수행된 지역 프로젝트들은 다음과 같다:

- “Schuldhulpmaaties” 즉 ‘무거운 채무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운동’에 참여하는 교구들의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에 속한 100개 이상의 회중들과 1,500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우리의 빈곤퇴치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
- 2012년 가을, 소위 ‘녹색 교회(들)’(“green churches”)라는 틀 속에서 첫 모임이 이루어졌다. 많은 교구들을 대표하는 150명의 사람들이 참석했다. 현재 100 개의 지역 교회들과 900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이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다.
- 망명자 지위를 알아보기 위한 빈번한 요청들이 있었고, 로비활동들과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개인들에게 후원이 이루어졌다. 지역 자원봉사자들의 네트워크가 토대가 되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일자리 프로그램을 위한 훈련과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사역들이 지역 회중들의 자발적인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네덜란드 개신교회에는 각 지역에서 섬기는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약 1만 여명의 섬기는 사람들과 10만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있다.

우리의 접근방법:

우리는 연결하고, 우리는 공유하고, 우리는 후원하고, 우리는 확인한다.

우리는 연결한다: 우리는 자신들이 받은 것을 나누고자 하는 지역교회 회중들과 조직들과 사람들을 한데 모아, 전 세계에 나가있는 ‘행동하는 교회’를 돕는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인도네시아에서 컨퍼런스를 조직하거나 또는 네덜란드에서 전국 섬기는 사람의 날을 개최함으로써 접촉점들을 형성한다.

우리는 나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눔으로써 교회를 돕는다: 돈, 지식, 경험 그리고 시간. 우리는 집에 서도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렇게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돈을 모으거나 자원봉사 활동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나누도록 독려한다.

우리는 후원한다: 우리는 조인과 정신과 물자를 전 세계의 사람들과 회중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교회를 돕는다. 교회 사회복지기관들, 범지구적 목회와 동역자 단체들을 위한 위원회들은 우리의 헌신과 직원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믿고 맡겨도 좋다.

우리는 확인한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학대와 부정의를 확인함으로써 교회를 돕는다. 우리는 이 문제들을 알리고,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데, 공적 영역이나 정치적 영역에서 들려지지 않는 이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는 활동을 한다.

우리의 활동영역들: 학대에 저항하는 믿음, 지역 신앙 공동체들에 대한 믿음, 긴급 구호, 이민과 인신매매 문제, 빈곤 아동들과 소수자 인권.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액트 얼라이언스의 중요한 역할

액트(ACT)는 전 세계 90개국 이상에서 약 140여 단체들이 모인 범세계적인 연합체이다. 일부 구성단체들은 인도주의적 구호와 개발에 중점을 둔 전문 부서들을 거느린 각 국가 교회들이다. ICCO(개발협력력을 위한 교회 간 협의회)처럼 ‘행동하는 교회’는 액트 얼라이언스(ACT Alliance)가 섬김, 개발, 인도주의적 구호 그리고 지지 활동의 영역에서 교회들과 교회 단체들의 네트워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액트 얼라이언스 내에서 행동하는 교회는 긴급 구호 연합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시리아, 네팔 그리고 그 외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러 나라들에서 행동하는 교회와 ICCO는 이 두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40여 개 나라들에서 다수의 전국 ACT 포럼들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역량의 분산을 예방하고 연합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역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구호는 확산되고 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전 세계는 점점 더 하나의 ‘몸’(body)이 되어가고 있다. 사람들이 미시적 수준에서 하는 일이 문제가 되어, 국가적 수준에서 그리고 지구적 수준에서 큰 충격을 일으킨다. 이를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이민, 경제, 기후, 음식 그리고 회귀 자원들에 대한 접근권을 두고 벌어지는 전세계적인 위기는 미시 체계들의 영향력이 일반 사람들의 일상 삶 속에서 얼마나 엄청난 재난이 될 수 있는가를 예증한다.

전 세계로 뻗어있는 액트 얼라이언스 내에서 일한다는 것은 곧 보다 복잡해지는 세계 속에서 지역을 지역으로 연결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는 말이다. 점점 더 작아지는 세계 속에서 함께 일하는 것이 더 필요해 졌다. 교회 구성원들은 행동하는 교회를 후원하지만, 또한 그 사역에 대해서 비판적이기도 하다. 액트 얼라이언스와 함께 일하는 것이 네덜란드의 지역교회 회중들과 기부자들과 더 나은 소통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 사역의 영향력을 나누는 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서로로부터 배울 수 있다. 또한 우리는(기후 변화처럼) 국가들과 사람들의 긴급한 삶의 변화가 요구되는 영역에서 미래를 위한 공동의 일정을 지향하며 함께 일할 수 있다.

개발 협력 사업과 긴급 구호 사업은 재난이 벌어진 곳과 당장 스스로의 자립능력을 갖추지 못한 보다 취약한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위한 동역자 관계와 관련해서 유럽 내의 정치적 동기들이 점점 더 이 사업이 우리 자신과 회사에 이익이 되는가의 물음에 종속되고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지키는 일이 서로 공평하게 나누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된 것처럼 보인다!

액트 얼라이언스의 구성원으로서 행동하는 교회는 다른 선택을 내려, 각자의 상황에서 보다 지속가능하고 의로운 사회를 향하여 일해 나가야 할 동역자들과 정부와 시민 사회의 책임감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사랑과 정의의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의 사역이 가장 가난한 이들과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확고한 자세를 지켜나가는 일이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도전이다. 그것은 또한 ‘빈곤에 대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들’(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n poverty)의 목적이기도 하다. 우리가 그것을 고수하고 그리고 하나의 동맹으로서 함께 일해 나가는 새로운 길들을 찾을 때, 액트 얼라이언스는 (교회와 그리스도 교인들에 의한 행동으로서) 보다 가시적이고 성공적이 될 것이다.

결론: 범세계적인 액트 얼라이언스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행동하는 교회를 향한 나의 꿈은 무엇인가.

이것은 아주 거대한 질문이다. 현재 거대한 국제적 위기들을 직면하고 있는 우리 세계에서는 너무나 큰 질문이다. 시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전, 국가들 간의 계속적인 긴장관계들, 점점 커져가는 종교들 간의 갈등, 부정의한 인신 매매 그리고 이민자들에 대한 착취 등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세계에서는 말이다. 공평한 나눔, 공평한 돌봄, 공평한 기후, 공평한 거래 그리고 공평한 이민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시스템들을 창출할 수 없는 세계에서 말이다.

나의 꿈은 이 5종의 공평성을 지향해 나아가는 단계들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공평성(fair)은 사랑과 정의와 청지기 정신 위에 구축된 시스템들을 가리키는 나의 표현이다. 보다 공평하게 되는 것, 그것이 다가오는 시대에 수행할 섬기는 사람들의 사역 일정이다.

지구적 사회에서 공평한 나눔, 공평한 돌봄, 공평한 교역, 공평한 기후 그리고 공평한 이주를 위한 지역적 행동이 필요하다. 액트 얼라이언스는 북반구-즉 유럽/네덜란드-에서 그리고 지구촌 남반구 모두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일하는 것을 가능케 할 것이다.

5천명을 먹이신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나와 내가 속한 단체에게 위대한 영감이 되었다. 이 이야기의 끝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나눔에 관하여 우리에게 전하는 그분의 교훈을 보여준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마태 14:19-20).

스웨덴교회의 디아코니아 사역

니 스메드버그(발스타 디아코니아센터 원장)
Ms. Ninni Smedberg (Vårsta Diaconal Centre)

간략한 배경과 사실

스웨덴 교회(루터교)는 약 630만의 신도와 13개 감독교구와 약 1,400 지역교구로 구성되어 있다. 고용된 직원들 (대략 2만5천명) 가운데에는 약 3,000명의 담임목회자들과 1,200 명의 ‘섬기는 사람들’(deacons, 이중 대략 1,000명의 ‘섬기는 사람들’이 교구에서 일한다)이 있다. 각 교구들에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약 20,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있다.

지난 2,000년부터 스웨덴 교회는 더 이상 국가 교회가 아니다. 하지만 결혼식, 장례식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부금 등 법률적인 문제들과 연관해서 여전히 교회와 국가는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서기 2,000년 이전에 사람들이 교회에 내는 것은 세금이었지만, 오늘날은 회비가 되었다.

교구 바깥에 (공식적으로 교회 외부에) 자체 기관으로서 5개의 디아코니아 기관들과 대략 6개의 그보다 큰 스웨덴 도시 복지시설들이 있다. 이 기관들은 스웨덴 디아코니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스웨덴의 교회 공식 외부 기관들이 되었다.

1851년 Ersta Diakoni가 본원 수도원(Motherhouses)이라는 독일 전통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스웨덴 최초의 디아코니아 기관으로서 설립되었다. 내가 책임자로 있는 Vårsta diakonigård(헤네산드Härnösand 소재)는 1912년 설립되었다.

오늘의 스웨덴 사회가 주는 도전들

스웨덴 사회는 과거 수년간 엄청난 발전을 이룩해 왔지만, 언제나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이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발전 속에는 점점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사회 복지의 보조를 받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이, 따라서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동시에 담지되어 있다. 아이들은 (스웨덴적 기준에 따르자면) 빈곤 상황에서 양육되고 있다. 이민자들과 점점 증가하는 난민들이 매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제한된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작은 시골 지역 당국들에게 특별히 더 그렇다.

불행히도 이러한 상황이 외국인 혐오증(xenophobia)와 취약한 집단들을 향한 적대적인 태도의 증가로 심각하게 이어지고 있다. 인종차별적 여론들과 심지어 (은폐된) 인종차별주의적 의제를 갖고 있는 정치적 정당이 현재 스웨덴의 정치적 상황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정부 즉 국가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한 한 더 이상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 (유럽연합의 규정들이기도 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이제는 학교, 병원 그리고 노인들을 보살피기 위한 시설들이 민간 자본이 주도하는 시장으로서 점점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이 민간 기업들의 서비스는 가장 값싼 가격에 판매되어야만 했는데, 이는 곧 그의 과제 즉 돌봄 그 자체가 빈곤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민간 회사들은 사실상 공적 세금이 운영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시스템이 구축되기 시작하던 1950년대 이래로 사회는 공적 관심의 문제로서 건강보험, 교육 그리고 돌봄 등의 일 대부분을 제공할 것을 요청받았다. 오늘날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처럼 스웨덴도 돌봄과 교육 분야에서 활동가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교구나 혹은 교회관련 기관들이 특별 프로젝트의 기금을 지원받아 혹은 공공분야의 대표로 위임받아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를 점점 자주 보고 있다.

이 섬기는 사역 프로젝트들은 이데올로기를 공유하는 비영리 조직에 의해 수행되는 노력들의 한 예들이다. 이 노력들과 기관들은 공적 부문이나 민간 부분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때로 “자발적 분야”(voluntary sector)라 불리는 분야에 어울린다. 유럽-연합의 상황 속에서는 “제삼 부문” “사회 경제” 혹은 “시민 사회”와 같은 용어들이 사용된다.

이 분야는 더 많은 수요를 요청을 받고 있고 그래서 향후 성장이 기대된다. 이는 함축적으로 새로운 선택들과 주도권들이 교구들과 섬기는 사역 기관들을 대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배후에서 하나의 결집된 힘으로서 행동하라는 혹은 다양한 지역 활동가들과 더불어 함께 행동하라는 요청일수도 있다. 또한 보육 기관 혹은 재활 기관 혹은 카페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교구가 후원하라는 요청일수도 혹은 특별히 인구가 희박한 전원 지역에서 우체국이나 컴퓨터 센터 같은 기관들을 대행하라는 요청일수도 있다. 미래의 보육과 교육에 관련된 사회적 논쟁들은 자발적 분야(voluntary sector)를 자주 불러들인다. 왜냐하면 그 분야는 어떤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관심으로 추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의 부가적 가치로서 이 사역에, 때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선한 의지를 지닌 사람들이 존재한다.

오늘날 스웨덴 교회는, 스웨덴 내 다른 교단들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자발적 분야(voluntary sector)의 한 부분이다.

국가와 스웨덴 교회 간의 강한 고리가, 끊어지진 않았더라도, 약화되기 시작한 지난 2,000년 이래로, 우리 교회는 이제 “자발적 부문” 즉 “제3 부문”(the third sector)의 일부가 되었고 이는 당연히 새로운 상황을 대면하고 있다.

(도시 선교 City missions를 포함하여) 디아코니아 기관들에 관하여 언급하자면, 이들은 오늘날 스웨덴 복지 시스템에 이미 참여하고 있으며, 매우 활동적인 분야이다. 때로 이들의 활동은 시 당국이나 다른 당국으로부터 (재정과 연결된) 아주 구체적인 과제를 함께 하기도 한다. 때로 (대개 노출된 사람들/주변화된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이나 개인들과 일하지만 (기부나 연대 후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면서) 보수없이 활동하는 로비스트의 역할을 감당하는 조직으로서 활동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역들 속에서 노출된 집단들이나 개인들과 함께 한 목소리가 되고자 노력한다. 때로 디아코니아 기관들은 상당히 많은 량의 섬기는 사역과 사회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교회가 이를 진심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기도 하다.

오늘날 우리 교구들에서 사역하고 있는 섬기는 사람들이 모두 주시하고 있는 사태는 바로 사회적 부적응이 점증하고 있고 그리고 노동시장으로부터 사람들이 (특히 제한된 노동 역량을 지닌 사람들과 혹은 이민자들이) 배제되는 일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섬기는 사람들이 직면한 도전 즉 오늘날 섬기는 사역을 달성하기 위한 방식이 [스웨덴] 교회 법령 2000에 만들어져 있다: 인간의 고통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섬기는 사람의 소명은 개입하여 다른 사람들이 책임있게 행동하도록 고취하는 것이다.

왜 섬김(diakonia)이어야 하는가?

첫째 창조의 신학(이라는 관점에서 말하자면), 섬기는 사역에 기반한 모든 사역은 또한 지금까지 창조된 모든 인류에 대한 전일적인(holistic) 관점에 기초하기 때문에 선정되었다. 이는 지구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동등하게 중요하다. 모든 섬김 활동(diaconal action)은 연관된 사람들, 빈궁한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 그리고 배제된 사람들의 존엄성 때문에 비판적 성찰을 필요로 한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가 서로에게 관계하는 법에 관해서 모범을 보여주었음을 인식한다. 섬기는 사역은 어디서 수행되든 항상 관계성 위에, 즉 해방과 화해의 활동 위에, 짓밟히는 사람들과 주변화된 사람들을 포함하여 고난당하는 자를 치유하고 복돋우는 활동 위에 세워져야만 한다.

세 번째로 교회론적 관점에서 그리고 섬김의 사역기관들과 교회 사이의 연관성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모든 섬김사역 기관(diaconal institution)은 어떻게 관계가 형성되고 그리고 교회라는 몸을 향해서 표현되는지를 성찰한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 안에서 세 가지 다른 관점으로 가시화된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증언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현현한 사랑을 위해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그리고 교회가 그 사랑을 연장하여, 그 네트워크 너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경험되도록 할 때. 이 세 관점들은 사실상 교회의 사명(선교)에 대한 서로 다른 측면들이 된다.

섬김 사역과 활동들

범세계적으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들에서 종교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개방성이 대두되었다. 교회들과 섬김의 사역기관들의 참여에 대한 사회의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사전에서 섬김(diakonia)을 “사람들이 필요에 응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수행하는 행동과 말에 의한 복음의 책임있는 봉사”라고 정의한다.

첫 번째로, ‘섬김’은 행동(action)이고 그래서 진술이나 선한 의도에 국한되지 않는다. 섬김은 “책임 있는 봉사”(responsible service)로 형성되는 행위들과 말들을 담지하며, 이는 곧 책임있는 사람의 행동을 의미한다.

섬기는 사역은 또한 초점을 갖고 있는데, 말하자면 사람들의 요구에 초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교회의 오랜 전통 속에서 ‘섬김’은 아프고, 가난하고 그리고 주변화된 사람들의 상황과 연결되어져 왔고, 그리고 취약한 사람들을 동행하고, 돕고 그리고 지키는 일을 수행해 왔다.

그러므로 모든 섬기는 사역은 신학적 관점으로부터 유래하는 이해와 우리를 둘러싼 세계로부터 도래하는 이해 사이의 균형 속에 살아간다. 이는 전통에 (즉 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과 또한 상황과 사람들에 잘 연결되어야 하는 것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말씀(설교)과 행위 사이의 연결과 더불어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스웨덴 내 교회들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만 집중해 오면서, 섬기는 사역을 교회건물 바깥에 멀리 거리를 두어왔기 때문이다. ... 그러나 이제 (섬기는 사역의) 일로 함께 갑시다.

전통적으로 ‘섬기는 사역’(diaconal work)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졌다. 그들이 교구 명단에 있든 혹은 활동하던 간에 말이다. 그러다 점점 많은 교구들이 수요를 분석하고, 다른 지역 기구들과 협동하게 되면서, 우선순위에 대한 토론들이 점점 더 도출되었고 따라서 새로운 대상-집단들이 가려지게 되었다.

새로운 대상-집단들은 몇 년 사이 약물중독자들, 노숙자들, 빈곤아동 가정들, 편부모 가정들 (특히 편모들), 젊은 엄마들, 집사들, 걸인들 등이었는데, 현재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바로 모든 (기존) 난민들과 (전쟁이나 빈곤 등을 탈출하여) 스웨덴으로 들어온 “신착 난민들”(newcomers)이다.

모든 섬김사역 교역자들과 선한 섬김 사역에 함께하는 모든 회중들은 섬김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자원 봉사자들을 필요로 한다. 어떤 회중들은 몇 명의 섬김사역 교역자들과 또한 섬김 사역을 책임질 사람들을 고용하기도 하고, 다른 회중들은 단 한 명만을 고용하기도 했으며, 또 다른 경우 어떤 회중들은 (나의 고향처럼, 특별히 지리적으로 넓은 지역이지만 회중의 규모가 작은 북 스웨덴 지역의 회중들은) 아무도 고용하지 않고 있을 수 있다. (특별히 후자들의 경우) 회중들 스스로 자원봉사자들에 의존하여 그 섬김 사역을 조직해야만 한다.

따라서 (교파에 상관없이) 모든 회중들은 내부적으로 (설교와 섬김 활동을) 교회의 사명(선교)으로서 하나로 함께 담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지도력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 지도자는 회중 내 사람들이 복음으로 동기를 부여받아 교회 내 자원봉사를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내 경험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기 원하고 그리고 (귀속감의 욕구에 따라 상황의 일부가 되어) 결집하기를 원한다. 아마도 거기에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술과 시간과 자원을 제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특별한 섬김의 지도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 자원봉사자들 또한 자신들의 욕구를 갖고 있는데, 이는 곧 누군가에게 자신들이 차이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느낌을 갖고 싶은, 또한 누군가가 그들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그런 눈으로 자신들을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싶은 욕구 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사람들에게 역량을 부여하는 일이다. 회중들 내에서 자원봉사자 그룹을 통솔하는 일은 지도력을 필요로 할뿐만 아니라, 회중들의 내적 삶과 그들의 외부지원 봉사활동 사이의 분명한 연관성을 요구한다.

‘섬김 사역’(diaconal work)에서 세 가지 다른 수준의 초점들을 분별할 수 있다:

1) 돕기: 반응적 섬김 사역(reactive diaconal work)

급박한 응급 행위. 예를 들어 음식이나 주거지, 돈이나 의복 등을 제공하는 것.

이 사역은 특별히 대도시들 주변에서 성장하고 있다. 우리의 섬김사역 기관들은 고용된 사람들과 더불어, 자원봉사자들과 더불어 그리고 정부 기금과 더불어 그리고 선물처럼 사람들이 보내오는 연대기금과 더불어 매우 활동적이다.

2) 목소리를 내기: 예언자적(prophetic) 섬김 사역

지지와 변화의 과제. 예를 들어 법률적 권리를 변호하기 위해 사회복지 사무소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과 같은 인권 중심의 사역. (사회) 구조들이 의도를 실현하기 보다는 비인간적으로 되려할 때, 항거의 목소리를 힘차게 외치는 것. 존엄성을 부여하는 사역.

이 사역 또한 “일반적인 사람들”(ordinary people)이 주변화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사회적 격차가 커짐에 따라 성장하고 있다.

3) 회복하기: 선제적(proactive) 섬김 사역.

창조세계의 파괴됨을 회복하는 일에 참여하기. 인간 뿐만 아니라 동물들과 환경을 포함한 전체 피조세계를 해방하고 돌보는 것은 장기적 계획을 생각할 것을 요구한다.

섬기는 사역은 다음 세 수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고 수행될 수 있다:

개인 - 사람들은 언제나 교회 안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 있어야만 하고 그리고 거기서 보여지고 존중받아야 하며, 또한 필요할 때 사려깊은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만 한다.

집단 - 사람들을 한데 모음으로서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경험의 나눔이 장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보다 넓은 시야로 창조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바로 이 창조성이 누적되어온 문제들에 대한 해법의 발견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사회 - 사회 발전에 선하게 기여할 수 있는 많은 방식들이 있다. 근본적 과제는 이미 기존하는 민주적 입법절차들과 과정들에 참여하고 지지하는 것이다. 국회 바깥 즉 원외 활동방식 예를 들어 로비를 하거나 시민 불복종을 실천하는 것이 자신들의 책임감을 소홀히 하는 권력자들에게 도전하는데 필수적일 수 있을까? 많은 교구들은 예를 들어 난민들을 후원하기 위해 비일상적 실천들에 참여해 왔다. 전국의 교구들이 수행하고 있는 섬기는 사역에 대한 그림은 다음과 같은 윤곽으로 대략 설명될 것이다: 보육, 목회적 돌봄, 치유 혹은 지지 및 후원.

교구들과 기관들을 위한 대표자들로서 섬기는 사역은 가시적이고 지역적인 필요들을, 즉 인간 고난의 표현들을, 보다 넓은 조망 속에서 보아야 하는 사명을 갖는다. 그 사명은 (이동 조리차같은) 급식시설이나 보호소를 여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말하자면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 돕는 것만으로는 (비록 이 일의 가치를 의문시할 수는 없을지라도) 충분치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결국에 그것은, 종속적 의존으로 인해 (감각과 의식이) 마비되는 느낌이 아니라, 한 인간 존재에게 역량을 복돋고 그리고 능력을 해방시키는 도움이어야 한다. 그것은 사회 분석을 필요로 하고, 어떤 것을 우선시 하느냐의 문제와 관련하여 교구 혹은 기관 내 담당 직원들과 내적 토론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예산 상의 재원 배분 문제, 책임 영역들의 문제 혹은 전체 의제를 해석하는 역량을 누가 가졌느냐의 문제 등과 같은 것들에서 그러한 필요를 보게 된다. 그것들 중 어떤 것은 결국 사회의 활발한 토론에 그치고 말수도 있을 것이다.

회중의 섬기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고취하는 영감의 근원이자 인도자로서 회중으로부터 임명받은 사람이나 '섬기는 사람'(deacon)은 사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자아-도취적 분위기의 교회를 향해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되어야만 할 사명과 명령을 갖는다. 가정-방문, 상담, 집무시간 등과 같은 "전통적인" 섬기는 사역으로부터 인권-중심의(right-based) 관점으로 초점을 이동시키는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

취약하고 그리고 노출된 입장에 처한 사람들을 대변한다는 것은 곧 '당신'이 힘없는 사람들을 편애하여 주장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당신'은 그들의 인권을 변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 섬기는 사람은 교구 혹은 기관의 재량에 맡겨진 권위(authority)의 힘을 일부 발휘해야 한다. 예수의 예증들을 상기해 보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 외적 역량강화(empowerment)의 사역을 수행할 때, 교회 자체 내 권력 구조 속에 균형이 결여 되어 있다면, 문제가 복잡해 진다.

서로 다른 목회분야들 간, 전문분야들 간 혹은 직원과 선출직 대표자들 간 구별이 애매하다면, 이는 섬기는 사역을 억제하고 저지할 것이다. 정치적, 예언적 섬김(diskonia)은 어디에서든 부정의를 지적하는 일이다. 이는 실천의 관점과 밀접하게 연관된 신학적 성찰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지역적인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지구적인 차원에서 삶의 올바르지 못한 상황들을 비판하고 싸우는 일 그리고 그 부정의의 이유들과 기원들을 맞 붙잡고 싸우는 일은 명백히 교회에 도전적 과제이다. 예언적 섬김은 모든 인간 존재의 공평한 가치 그리고 존엄성 그리고 신성함의 약속에 충실하게 선다. 예언적 소명은 부정의들을 드러내고 그리고 인권을 포함하여 정의를 위해 싸우고 지키는 일을 수반한다.

섬김(Diakonia, 디아코니아)은 지역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구적 차원에서 다리들을 구축하는 사명이다. 섬기는 사역은 전일적인(holistic) 관점을 향하여 앞선 발걸음을 내딛고 유지해 나가는 일-즉 인권(rights)과 정의와 돌봄(care)을 한데 모아 찬양하고 은혜를 나누는 일-이어야 한다.

내 상황으로부터 훑어보기

이제 질문들로 들어가 보자면,

1. Vårsta 섬김 센터는 기독교의 사회적 섬김 사역을 촉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스웨덴 교회와 제휴된 독립 재단이다. Vårsta는 스웨덴 (중부, 스톡홀름으로부터 위쪽으로 450 킬로미터 떨어진) 헤네산드(Härnösand)에 위치해 있다. 25명의 직원들이 있고, 약 10 여 명의 사람들이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

- 대개 다른 기관들과 협동하여 실천적인 사회적 섬김 사역을 개발했다.
- 섬김 사역에 관한 정보, 목회 상담 그리고 가족 상담의 센터이다.
- 국내 및 국제 사역에서 위기 센터와 재난 센터 역할을 맡고 있으며, 예를 들어 국제적 재난들이 발생했을 때 심리사회적 사역 그리고 포스트-트라우마 스트레스 신드롬(Post-Traumatic Stress Syndrome)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사역을 한다.
- 장기간 직업 없이 지내온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사역과 또한 젊은이들과 난민들 뿐만 아니라 심리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사역. 우리는 이를 녹색 재활(green rehabilitation)이라 부르는데, 큰 정원에서 이루어진다.
- 직업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며, 그를 위해 우리는 또한 조그마한 사회적 기업을 갖고 있다.

- 노인들을 위한 주거시설 두 개를 운영하는데, 병원과 같은 돌봄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간단한 도움이 제공되며 친교를 독려한다.
- 교회들과 기관들과 상사회사들과 함께 일한다.
- 섬김의 환경을 제공하고, 컨퍼런스 센터 뿐만 아니라 게스트룸들도 갖추고 있다.

2. 우리는 교구 내 모든 회중들과 특별히 가족 상담 사역을 함께 수행한다. 우리는 다섯 개의 센터를 갖고 있는데, 교구 회중들 중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상담 받는 사람으로부터 소정의 사례를 받고 있으며, 이를 교구가 지출하든지 회중들이 하든지 할 수도 있다. 두 번째로 (크든 작든) 위기와 재난을 다루는 방식과 관련하여 회중들 중에서 고용된 사람들을 또한 돕고 교육한다. 이 교육은 물론 (병원이나 경찰 혹은 응급 서비스에 고용된 사람들처럼) 다른 교단이나 기관의 사람들에게도 열려있다.

범 세계적 활동과 관련하여 우리는 위기와 재난들 그리고 테러리즘의 활동들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국내와 해외의 스웨덴 교회 모든 회중들을 돕고 교육한다.

우리는 유럽 내 섬김 사역 기관들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네트워크 안에서 주된 사역은 로비활동과 정치적 사회적 정보 분야이다.

3. 우리는 일부 회중들로부터 소정의 모금된 돈을 받거나 회중들 내 작은 그룹들로부터 자발적인 선물을 받는다. 우리는 또한 개인들이 기부한 소정의 돈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재단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재정의 대부분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거나 혹은 우리 스스로 조달한다 (당국이나 다른 기관들이 우리의 서비스를 구매한다).

예를 들어 (시 당국 내 주무기관들 뿐만 아니라 교도소 내 직원들과 같은) 많은 당국들에 감시 용역을 대행하거나 또는 난민들과 PTSS(post-traumatic stress syndrome, 외상후 스트레스성 증후군)으로 고통받는 “새로 도착한 난민들”(newcomers)과 함께 사역하는 직원들을 위한 교육을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노동 시장을 떠나 있던 사람들을 위해 시청의 고용 사무소에서 배치대행 업무를 맡기도 하는데, 이 일은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동기(와 힘)을 다시 찾도록 돕는 일이다(역량고취 empowerment!).

4. 우리는 재단을 지휘하는 이사진들을 제외하면 우리의 사역과 연관된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갖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전문지식과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의 사역을 돕는다. 요청이 있을시, 우리는 회중 내 섬김 사역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계속 교육을 시행한다.

5. 오늘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은 이중적이다:

먼저 교회 내 도전

스웨덴 속담에는 “신발에 돌을 갖는다는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불쾌하고 심기를 어지럽히는 것을 인식하라는 의미이다. 섬기는 사람과 섬김 사역 기관들이 소명들 중 하나는 가혹한 각성자(harsh eyeopener) 즉 안락함에 대한 도전 즉 내 자신의 안락함과 회중과 교회의 안락함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우리들에게 함께 모여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듣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그 찬송과 설교와 기도가 실제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도전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쉬운 일이다. 섬기는 사람의 직무들 중 하나는 (기도와 노동, ora et labora의) 연관성을 회중들이 알도록 하는 것, 그리고 ‘나는 어떻게 내 몫을 기여할 것인가?’라는 물음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섬기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 지역현장에서 벌어지는 도전들을 지적할 때 아주 분명해진다,

- 길거리에서 임시로 살아가는 걸인들, 집을 구성하는 거의 모든 구성요인들이 결여된 끔찍한 주거 환경의 보호시설, 홈리스가 될 위기에 처한 아동들, 하루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단을 거의 갖지 못한 가난한 노인들.

이 명백한 것(들)에 우리는 얼마나 자주 눈을 감는가?

섬기는 사람 뿐만 아니라 섬김 사역기관들의 도전은 회중들에게 영감을 불어 넣어 생동감 넘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고, 실천의 현장에서처럼 기도로 서로를 돌보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사역은 언제나 우리의 안락함에 도전할 것이고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의 눈과 귀를 닫기를 결심해야 하는 위험이 따른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신학과 예배와 섬김(diskonia)을 연결하는 한 몸으로서 목회를 올려보는 것이 본질적이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한 몸(one body)으로서 자신의 재원과 수요를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품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섬김 사역기관의 역할은 “아무도” 실제로 관심하고 있지 않는 사역 분야들을 표시함으로써 그 사회 사람들의 수요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표시한다는 것은 (개인이든 집단이든) 사람들이 올바르게 돌봄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가지고 막 스웨덴에 도착한 사람들(즉 외상trauma이나 다른 전쟁의 상해를 입고 새롭게 도착한 이주자들)을 위한 시설/처소를 열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특별히 자녀가 있는 혹은 없는 여성들과 동성애자들을 위한 시설을 간구하고 있다. 이 범주의 사람들은 스웨덴에 도착해서 가장 고통받고 때로 (세계 전역에서 온 젊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열악한 조건에서 살도록 강요받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목표는 시설을 갖추고, 거기서 치료와 심리적 사회적 도움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Vårsta의 책임자로서 나에게 던져진 도전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는 것 뿐만 아니라 상황이 (말하자면 사회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사랑의 행동: 애덕기금회 활동

자오 징웬(중국 애덕기금회 국장)
Ms. Zhao Jingwen(Helen)(The Amity Foundation)

애덕기금회(Amity Foundation)는 1985년 중국 기독교인들의 주도하에 관련 단체의 지원에 힘입어 설립된 독립적인 중국 자원봉사 단체이다. 이 단체의 창립 목적은 교육, 사회봉사, 보건, 공동체 개발, 환경보호, 재난구호, 중국 낙후지역의 가난 퇴치 활동을 벌이는 것이다. 애덕기금회 사업은 중국 국내와 해외에서 천만 명 이상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2014년 애덕기금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로부터 특별 자문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애덕기금회는 상호 존중과 종교 간 조화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내외 사람들과 우정을 쌓고 있다. 기금회는 포괄적인 개발과 공공복지 증진을 통해 사회를 섬기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기금회의 사업은 농촌지역 통합 개발 사업과 도시 지역사회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 형성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기금회의 활동 분야는 기초교육, 환경보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지만 이런 부분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수많은 사업과 함께 사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이 향상되고 있다.

1. 애덕기금회의 활동

1.1 농촌지역 개발

1.1.1 지역개발과 환경 보호

애덕기금회는 후난 성, 운남 성, 쓰촨 성, 구이저우 성, 광시 성, 몽골 내륙 등지에서 30개 이상의 농촌 통합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0개 이상의 농민 자치조직을 설립하도록 도와주었고, 주민들이 지역사회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해왔다. 역량 개발, 교육, 보건, 농업 인프라, 경작지를 초지와 산림으로 되돌리는 사업, 축산업, 재생 가능한 녹색 에너지와 문화보존과 같은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생태환경, 보건, 교육, 문화유산 보호, 지역사회 재건과 지속 가능한 개발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었고 약 6백만 명이 혜택을 보았다.

1.1.2 공공보건과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HIV-AIDS) 예방

애덕기금회는 도시지역에서 기본적인 보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통합적인 지역봉사활동에 질병 예방과 보건 활동을 결합시키려고 노력해왔다. 지금까지 이 공공 보건 HIV-AIDS 예방 사업을 통해 중국 서부 9개 성에 거주하는 16,000명의 동네 의사와 69,000명의 도시 병원 근무자들 상대로 교육훈련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빈곤 지역에서 수백 개의 동네 병원을 설립하도록 지원했다. 아울러 요오드 결핍증과 산부인과 질환과 같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활동을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운남 성, 허난 성, 후난 성, 구이저우 성, 광시 성 장족자치구, 충칭 시 지역에서 HIV-AIDS 프로젝트를 여러 차례 실시하여 무료 항생제와 성매매 종사자들의 동료 간 교육(peer education), 소액 대출을 HIV-AIDS 환자들에게 제공했다. 아울러 이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과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성생활 방법을 홍보하고 HIV-AIDS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조사했다.

1.1.3 장학금과 고아양육

애덕기금회는 농촌지역의 불우한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왔다. 12만 명의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햇불 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9백 명의 대학생들을 지원했다. 기금회를 통해 최소 700개의 초중등 학교가 학교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교육 설비와 활동 교실, 태양열을 이용한 샤워실, 체육실과 음악실을 제공받았다. 기금회의 고아양육 사업은 1만3천 명의 고아들의 학업을 지원했으며 고아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시행했다.

1.1.4 사회복지

애덕기금회의 사회복지 활동은 사회의 불우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와 교육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12개의 성과 지역에서 고아원들과의 협력 사업, 특수교육, 의료 활동, 재활 및 호스피스 활동 등 4개의 주요 분야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금회는 안과 의사와 눈 관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100개 이상의 이동식 백내장 수술팀을 지원하여 약 1만 명의 환자들이 혜택을 받았다. 또한 1400명의 소아마비 환자를 위해 재활치료를 지원하고 소아마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통합교육을 제공했다. 몇몇 성에서 실시된 두 개 언어 병용교육 시범사업은 국제적으로 일류 수준에 도달했다.

1.2 도시 지역 봉사

1.2.1 도시 지역 노인을 위한 봉사

이 기금회가 직접 관리하는 애덕회 렌구 요양원(Amity Rengu Nursing Home)은 2012년 난징 시 치샤 구 민원국 산하에 설립되었다. 이 요양원은 건물면적 1만 제곱미터, 240 병상 규모로 건축되었고, “개인 맞춤형 종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렌구 요양원은 탁월한 관리 및 서비스 모델을 적용하여 사회복지 전문가, 간호사, 치료사, 돌보미로 이루어진 종합적인 서비스 팀을 운영한다. 또한 렌구 주변 지역에 있는 10개 이상의 인근 동네에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근 동네 노인들은 이 요양원의 전문적인 지원과 또 다른 애덕기금회 사업인 가상 요양원(Virtual Nursing Home)을 이용한다. 기금회는 가정과 지역사회와 요양기관에 기반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함으로써 다중 채널 노인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 장쑤 인민병원(Jiangsu People's Hospital)과 향후 3년에 걸쳐 치료와 주거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하는 선구적인 노인 돌봄 센터를 공동 설립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1.2.2 장애 청소년을 위한 봉사

난징 시 최초의 비영리 전문기관인 애덕 축복의 집(Amity Home of Blessings)은 일상생활과 공동체 적응과 다양한 직업에 필요한 기술을 훈련시킨다. 이 기관은 2010년 장쑤 성 장애인연합회로부터 “모범적인 심터 및 돌봄 기관”으로 표창을 받았다. 애덕 베이커리(Amity Bakery)는 전문적이고 안전하고 적절한 직업훈련 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에 언급된 활동들은 사회적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운영되며 직업훈련생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생계비를 벌며 생활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애덕 베이커리는 중국사회복지협회로부터 “비정부사회복지 선도기관” 상을 받았으며,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한 이 기관은 기업의 취지와 혁신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크게 인정을 받고 있다.

1.2.3 자폐 아동을 위한 재활서비스

2008년 아이들과 그들의 가족이 직면한 교육과 발달과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덕기금회는 애덕 아동 발달 센터를 설립하여 전문적인 평가, 재활, 조기 개입과 지원, 아울러 초중등학교에 다니는 자폐 아동과 학생들, 그리고 그들의 돌보미들을 위한 훈련과 집단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2014년 이 센터는 난징 시 장애인연합회로부터 구러우 구에서 7-14세 자폐 아동들에게 재활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추가로 자폐장애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여섯 차례 개최함으로써 의료와 돌봄 측면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3 재난관리

1987년에 발생한 다싱안링 산맥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애덕기금회는 최초의 재난구호사업인 다싱안링 산맥 복구 보상 기금을 시작했다. 그 이후로 애덕기금회는 매년 평균 2-3건의 자연재해 때 구호활동을 펼쳤으며, 50건 이상의 주요 자연재해 구호활동에는 1991년 중국 동부지역 홍수, 1998년 양쯔강 홍수, 2008년 쓰촨 성 원촨 대지진이 포함된다. 애덕기금회는 지금까지 중국 20개 이상의 성 지역뿐만 아니라 북한, 케냐, 필리핀, 네팔에서도 재해구호 활동을 펼쳤다.

2008년 쓰촨 성 대지진 후 애덕기금회는 미안주(Mianzhu) 군 우윤(Woyun) 마을에서 지역사회 재건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지진 피해를 당한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물질적 지원과 정신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재해를

복구할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2015년 4월 네팔 지진 때 애덕기금회가 펼친 즉각적인 재난구호 활동은 중국의 비영리 단체가 국제 구호활동에 참여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1.4 국제 교류와 협력

교육과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취약집단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중국 국내와 해외의 청년들에게 유학, 자원봉사 활동, 인턴, 개인들 간의 관계 형성 기회를 부여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 세대들에게 지식, 봉사활동, 혁신 측면에서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국제적인 시각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휴머니즘을 습득한다.

지난 30년 동안 이 프로그램은 2천 명 이상의 장기체류 교수들을 초청하여 중국 내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게 했다. 초중등 학교의 중국인 교사들 3만2천 명 이상이 여름 영어교육 프로그램에서 교육을 받았다. 미국, 덴마크, 독일, 노르웨이, 호주, 일본, 홍콩, 그 외 다른 국가에서 온 수천 명의 청년들이 중국 학생들과 외국 학생들 간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된 교육 프로그램에서 자원 봉사 활동을 펼쳤다.

30년 동안 협력, 연구, 방문의 목적으로 중국을 찾아온 수천 명의 해외 친구들이 직접 애덕기금회를 직접 방문했다. 지난 10년 동안에만 애덕기금회 본부를 세계교회협의회 사무총장, 두 명의 캔터베리 대주교, 세계복음주의협의회 사무총장,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대주교, 나이지리아 주교를 포함한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방문했다.

2013년 미국 대사 게리 로케와 캐나다 총리 부인 샤론 존스톤이 애덕 베이커리를 방문하였다. 최근 ARD Fernsehen, BBC, CNN, Los Angeles Times, Chicago Tribune, Financial Times를 포함한 주요 외국 언론들이 애덕기금회와 인터뷰를 하고 보도하였다. 국제교류를 위한 중국 비정부기구 네트워크 회원인 애덕기금회는 아프리카와의 협력과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애덕기금회의 비정부적 외교 활동은 국제적 관점을 넓혀주었을 뿐 아니라 중국과 다른 국가 간의 상호 이해와 소통을 증진시켜 사람들 간의 우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했다.

2. 종교적 박애주의

K. H. 텡(Ting) 주교와 다른 교회 지도자들은 기독교를 중국 여건에 맞도록 조정하여 교회가 중국 사회주의 사회에 적합하게 발전하도록 큰 노력을 기울였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이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약자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라 애덕기금회는 1985년에 이런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중국 교회의 사회봉사를 보여주는 모범이자 창구역할을 해왔다. 애덕기금회는 중국 기독교인들이 중국의 사회문제에 더 많이 참여하여 중국의 개혁과 개방,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랐다.

중국 교회가 사회봉사에 참여할 때 봉착하는 주요 문제는 교회의 종교적 특징과 중국 정부의 전도금지 정책 간의 갈등이다. 1980년대 중국은 사회봉사 활동이 초기 단계에 불과했지만 중국 교회는 책임감을 갖고 가난한 중국 기독교인들을 도와주었다. 교회가 사회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법률이 없었을 때 애덕기금회가 설립되었고 중국의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인들이 애덕기금회의 봉사를 더 잘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런 여건은 기독교가 중국에서 토착화하는 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고 중국의 특징에 맞게 사회봉사를 펼칠 수 있었다.

기독교인이 시작한 비정부기구(NGO)인 애덕기금회의 목적 중 하나는 기독교인들이 중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회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참여하는 것이다. 애덕기금회는 중국 종교계, 특히 기독교인들이 사회 건설에 참여하도록 촉구하고, 사회봉사 역량을 향상시켜 점증하는 사회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노력한다.

2.1 교회와 사회봉사

2002년부터 애덕기금회는 교회가 운영하는 210개 이상의 사회봉사 사업에 총 1억 위안(약 169억원)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주로 중국 중앙지역과 서부지역에 사는 약 30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2015년 말 현재, 산둥 성과 안휘 성을 포함한 10개 성과 장쑤 성에 위치한 80개 이상의 비정부 사회봉사 기관이 주로 교회 사회봉사 기관으로 구성된 사회봉사 네트워크에 합류했다.

2.2 장쑤 성 기독교 사회봉사기금

애덕기금회와 장쑤 성 TSPM/CC는 중국공산당 장쑤성위원회 통전부와 장쑤 성 종교국의 지원을 받아 장쑤 성 기독교 사회봉사기금을 공동으로 설립했다. 이 기금은 농촌지역의 보건, 환경 보호, 아동 발달, 장애인을 위한 봉사, 교회 자원봉사팀 육성, 사회봉사 역량 구축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이 기금은 역량 개발 사업을 노인들과 약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수행한다. 이 기금은 2천만 위안(약 34억원) 이상을 모금하여 22개 분야 138개 사회봉사 프로젝트를 지원했으며 10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교회 환경보호 행동(Church Environmental Protection Action)은 장쑤 성의 9개 지역에 24개의 환경보호 행사를 개최했으며 4만6천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이 행사에 참여했다.

2.3 종교 간 협력

애덕기금회는 중국공산당 장쑤성위원회 통전부와 장쑤 성 종교국의 위탁을 받아 2015년 7월 제1회 장쑤 성 종교적 자선활동 훈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 장쑤 성의 5개 주요 종교의 지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5일간 열린 이 워크숍은 자선활동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이론과 실천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행사는 중국에서 최초로 종교 간 대화와 자선활동 협력을 위한 발판을 제공함으로써 중국과 해외에서 폭넓은 찬사를 받았다. 여러 종교들이 사회봉사 개발에 참여하도록 다리와 발판의 기능을 감당하는 애덕기금회의 역할이 점차 더 중요해지고 있다.

3. 협력과 자원조달 구조

애덕기금회는 적절한 자원조달을 통해 매년 성공적으로 발전해왔다. 10년 전 애덕기금회가 20주년이 되던 해에는 처음으로 한 해에 1억 위안(약 169억원)을 모금했다. 우리는 매우 고무되었다. 하지만 애덕기금회의 현명한 관리자들과 위기를 인식했다. 중국의 전체 국가 역량이 계속 향상되고, 해외 선진국들이 경기 침체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기금의 95%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했다. 지난 4년 동안 계속 애덕기금회의 국내 모금액이 해외 모금액보다 더 많은 것은 기쁜 일이다. 그리고 인터넷 자선활동, 모두를 위한 자선활동, 특별 기금, 그 외에 다른 활동이 새로운 기금 마련 통로가 되고 있다.

애덕기금회는 해외 파트너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사업 활동재원을 모금한다. 지난 30년 동안 애덕기금회는 국내외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다. 최근 들어, 애덕기금회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 기여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기금회는 네팔 지진, 필리핀 홍수, 아프리카 화재에 지원했다. 애덕기금회 웹사이트는 정기적으로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한 의료 지원 기금 모금 활동을 진행한다. 기금회는 중국 내에서 재원을 모아서 중국 바깥에 사는 사람들을 지원한다. 재정적인 측면을 말하자면, 애덕기금회는 기금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자원조달 구조를 바꾸었다. 지난 해 기금회의 국내 모금액이 전체 모금액의 76%이다.

자선 활동은 국경, 언어, 민족을 초월한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사는 지구가 서로 의존하는 공동체이며 운명을 공유한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애덕기금회가 발전한 것은 국내외의 많은 친구들과 파트너들이 강력하게 지원한 덕분이었다. 오늘날 기금회는 보편적인 공유 없이는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애덕기금회는 지구 남반구-남반구 협력과 남반구-북반구 협력을 통해 자신의 실천과 성과를 널리 공유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빌 3:13-14).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애덕기금회는 국내외의 더 많은 친구와 파트너들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혼자 걸으면 빨리 걸을 수 있다. 그러나 함께 걸으면 더 멀리 갈 수 있다. 애덕기금회는 애덕기금회의 사명과 비전 속에서 여러분 모두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걸으며 더 풍성한 삶, 더 나은 정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가난 극복을 위한 디아코니아 능력 개발

칼로스 에밀리오 햄(마탄자스 개신교신학대학 총장, 쿠바 디아코니아 학회)
Rev. Dr Carlos Emilio Ham(Theological Evangelical Seminary in Matanzas)

1. 서론

여기에 모인 사람들처럼 교회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하나인 ‘빈곤 퇴치’를 국제 디아코니아 회의의 중심 주제로 선택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 특히 주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디아코니아 사역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이다.

남미의 전통적인 신학은 가난의 개념을 ‘극심하게 가난한 상태’로 보기보다는 주로 불의한 구조 때문에 여러 자원이 박탈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교회로서 우리는 구체적인 연대 행동을 통해 궁핍한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자비로운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을 넘어 가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디아코니아 행동은 그 정의상 예언자적이어야 한다. 즉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와 동시에 불의의 근원과 맞서야 한다.

2. 에큐메니칼 운동에서의 디아코니아

에큐메니칼 운동은 20세기부터 지금까지 디아코니아 사역의 이론과 실천 두 부분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나는 이러한 풍성한 역사에서 발견한 3단계 또는 3개 모델의 에큐메니칼 디아코니아, 즉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이 단계들은 때로 갈등의 징조나 긴장의 순간을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 서로 간의 흐름을 보완하기도 한다. 이 단계 또는 모델은 다음과 같이 자선 모델, 호혜 모델, 변혁 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

a) 자선 모델

이 단계는 교회가 서로 도와주는 시기로서 주요 특징은 디아코니아 사업과 궁핍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당히 수직적이고 하향식으로 재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원조의 대상으로 간주되며, 주로

북반구에 위치한 가장 유력한 교회나 교회 관련 단체가 지원금을 제공한다. 이 시기에 디아코니아는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의 필요에 응답하기 위해 말과 행동을 통해 복음을 실천하는 것’²⁾으로 정의되었다. 자선 모델은 20세기 초부터 1980년대 초까지 계속되었으며 유용하였다.

b) 호혜 모델

이 단계는 자원의 에큐메니칼 공유³⁾ 과정⁴⁾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모델은 1980년대 개발되었는데, 주로 1986년 키프로스 라르나카(Larnaca)에서 ‘디아코니아 2000: 이웃이 되라는 소명’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교회 간의 지원, 난민, 세계 봉사 관련 세계회의와 1987년 스페인 엘 에스코리알(El Escorial)에서 열린 코이노니아 회의에서 비롯되었다. 이 시기에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변화는 주로 지구 남반구와 동양의 교회가 제기하는 목소리와 사역의 영향 때문이었다. 여기서 디아코니아와 관련된 역량 개발 개념과 실천이 새롭게 등장한다.

이 모델은 21세기 첫 10년 동안 더욱 계획적이고 집단적인 방식으로 시행되었으며, 보다 수평적 차원에서 필요와 과제와 문제를 평가한다. 예를 들어 라르나카 회의 참석자들은 마지막 선언문에서 다음 내용을 강조했다. “... 현재와 미래의 디아코니아는 상호 신뢰와 진정한 나눔에 기초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대륙의 사람들과 교회들이 도움이 필요하며, 우리의 디아코니아는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함을 인식한다.”⁵⁾ 또한 엘 에스코리알 회의에서는 삶과 노동(Life and Work)이라는 틀 속에서 선교와 봉사 간의 거대한 이분법을 극복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다. 여기서 채택한 보고서는 “기독교 공동체의 모든 활동, 즉 복음전도, 디아코니아, 인권 투쟁, 치유, 평화와 정의는 하나님의 한 선교 안에서 함께 존재한다”⁶⁾고 밝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도 우리-그들이라는 사고방식이 여전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돈보다는 다른 자원, 예를 들어 사람들을 공유하려는 기대가 더 강하다. 이런 흐름은 새로운 변화의 과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c) 변혁 모델

이런 변화는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열린 21세기 디아코니아에 대한 신학적 전망에 관한 2012 콘퍼런스로 이어졌다. 나는 이 시기의 특징을 변혁적이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다양한 에큐메니칼 선교 네트워크와, 특히 사회와

2) Teresa Joan White, "Diakonia," in Dictionary of the Ecumenical Movement, ed. by Nicholas Lossky et al, 2nd. edn (Geneva: WCC Publications, 2002), accessed on 15 September 2013, <www.oikoumene.org>, p. 305.

3) Dong-sung Kim, 'Partnership and Resource Sharing', Ecumenical Missiology. Changing Landscapes and New Conceptions of Mission, 35 (2016), pp. 259-70.

4) Carlos Ham, 'Historical Review of the Sharing of Resources Within the Ecumenical Movement.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sult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urches and Specialized Ministries / 4-10 September 2014, Nkopoloa Lodge, Malawi.' (Not published).

5) Klaus Poser, Diakonia 2000 - Called to Be Neighbors. Official Report of the WCC World Consultation on Inter-Church Aid, Refugee and World Service, Larnaca, Cyprus, November 1986 (Geneva: World Council of Churches, 1987), p. 125.

6) Hubert van Beek, Sharing Life in a World Community. Official Report of the WCC World Consultation on Koinonia, El Escorial, Spain, 1987 (Geneva: WCC Publications, 1989), p. 45.

교회에서 종종 소외되는 사람으로부터 디아코니아 실천 개념에 대한 방향성이 강하게 제시되었다. 이것은 다양한 디아코니아 활동의 포용과 통합, 서로 간의 더 강한 연대로 발전했다. 이것은 주변부 지역의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장애인, 여성, 원주민, 아프리카 후손, 가난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져 귀납적인 방식으로 **상향식**으로 사회를 바꾸는 능력을 발전시켰다. 이 모델은 변혁을 일으킨다.

3. 디아코니아와 능력 개발

콜롬보 콘퍼런스가 개최된 해에 쿠바 개신교 신학대학에서 중앙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스페인어 사용 지역의 디아코니아 능력 개발에 관한 세미나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최종 선언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디아코니아는 윤리적,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법률적, 다문화적 가치에 기초해야 하며, 아울러 교회의 전반적인 선교에 충실해야 하며, 그 활동은 포용적이어야 하며, 젊은이와 아이들과 여성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디아코니아 사역은 개인이 자신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협력과 연대를 통해 포용적인 경제 원칙을 촉진할 수 있는 과정을 고취해야 한다.⁷⁾

나는 이 인용문에서 우리 주제와 관련된 다음 내용을 강조하고자 한다. (1) 무엇보다도, 디아코니아 활동은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의 일환으로 수행한다. (2) 디아코니아 활동은 다양한 학문과 파트너가 참여하는 학제적인 (interdisciplinary) 활동이다. (3) 이 활동은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모든 부문을 포함하는 포용적인 활동이다. 마지막으로 (4) 이 활동은 능력을 개발하는 활동으로서 참가자와 기관들이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선언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디아코니아는 절대적인 힘의 입장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선에 헌신하고자 하는 힘에서 비롯된다. 시혜적인 행위나 절대적인 힘의 행위로서의 ‘봉사’는 성경적 의미의 봉사와는 상반된다.”⁸⁾

따라서 디아코니아와 능력 개발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능력 개발은 사람들의 역량과 자신감을 북돋우고 증진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인식된다. 이것은 사람들이 내적인 힘을 해방시키고 다시 받아들이고 개발하여 자신의 거대한 잠재력을 드러내고 능력과 자신감과 자기 확신을 고양시키는 운동이다. 이 과정의 목적은 연약한 사람들을 빈곤하게 하고 배척하는 지배 권력과 제도의 힘에 맞서 집단적으로 저항하고 도전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정의와 포용의식을 만들고 변혁과 공의를 위한 참여를 이끌어내어 삶의 환경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7) WCC, Final Statement of Seminar on Empowerment for Diakonia in Central America and the Spanish-Speaking Caribbean, Matanzas, Cuba - 15-20 July 2012 (Matanzas, Cuba, 2012), p. 2.

8) WCC, Final Statement of Seminar on Empowerment for Diakonia in Central America and the Spanish-Speaking Caribbean, Matanzas, Cuba - 15-20 July 2012, p. 3.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능력 개발과 디아코니아 간의 중요한 관계를 보여주는 몇 가지 인용문을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서로를 촉진한다. 예를 들어 교회는 사람들이 스스로 인간 존엄, 자립, 변화를 고양할 수 있는 능력을 얻도록 노력해야 할 소명이 있다. 두드러진 인용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 “능력 개발은 디아코니아와 정의 추구 활동의 중심이며, 교회와 교회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많은 일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나 목표다. 기독교의 틀 안에서 수행되는 능력 개발 활동은 인간의 존엄을 다루고 각 개인과 집단이 그들의 고유한 은사와 능력을 드러내게 함으로써 변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하는 것이다.”⁹⁾

나의 기본적인 가정 중 하나는 유대교-기독교 전통의 관점에서 능력 개발은 상호성, 동반자관계, 능력 공유의 정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타인에게 손을 내미는 과정 속에 이루어지도록 권장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능력 개발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섬기는 권세(power-service)를 확신하는 디아코니아와 결부된다. 요즘 많은 지역 교회들이 각자 처한 조건과 사람들의 요구에 맞추어 디아코니아 사역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능력 개발과 디아코니아는 선교적 교회의 필수요소다. 사람들은 원조와 자선의 대상을 넘어 자신의 운명과 각 지역사회의 주인이 되기 위해 행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빈곤을 다룰 때 요점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문제의 일부가 아니라 해결책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능력개발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이름 붙인 역량 개발 디아코니아(Empowering Diakonia)모델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론과 실천을 서로 연결하는 필수적인 도구일 뿐만 아니라 실행을 위한 분석과 기술과 해석에 필요한 유용한 진단 도구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모델을 적용하면 디아코니아와 역량 개발을 서로 밀접하게 연관시키기 때문에 실천에서 이론으로, 역으로 이론에서 변혁을 위한 실천으로 이행하는 데 도움을 준다.

4. 능력 개발 디아코니아 모델

능력 개발 디아코니아 모델은 우리의 사례인 교회, 특히 지역 교회가 궁핍한 사람들이 스스로 사회의 주체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추진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교회는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모든 힘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효과적인 사랑의 행위와 인간의 필요를 섬김으로써 사람들과 함께 섬기라는 부름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과 사회는 상호관계성과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게 한다. 물론 이런 능력 개발 과정은 교회 구성원에게만 제한되지 않으며 더 넓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 모델은 5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이를 능력 개발 디아코니아의 다섯 가지 차원이라고 부른다. 여기에는 비전, 규범, 필요지향성, 상황적 맥락, 변혁이 포함된다. 이들은 학제적이면서도 서로 관련되어 있다. 아래 단락에서

9) WCC, Diakonia: Creating Harmony, Seeking Justice and Practising Compassion (Geneva, 2005), p. 7.

각 요소의 의미를 요약해서 제시한다.¹⁰

A. 비전 – 상상력이 넘치고 지혜로운 행동을 숙고하기 위해 미래의 현실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비전은 우리를 하여금 전진하게 하는 유토피아처럼¹¹ 동기를 부여한다. 비전은 엔진이자 사상적 토대다. 유대교-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이것은 “목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기”(잠 29:18)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더 나아가 디아코니아 비전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능력을 부여하신다. 비전은 신학적 성찰, 영적-신비적 경험, 종교의례와 관련되며, 현실과 실천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지향하며, 실현 가능한 것을 상상하며, 실현 가능한 또 다른 세상¹²을 이루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역량 개발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힘 있게 참여하여 창조세계와 인간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인간 존엄과 정의를 고취하는 것-를 실현하라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telos)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¹³ 그러므로 비전은 능력 개발을 추구하며, 우리의 경우에는 디아코니아 행동을 위한 능력을 부여한다.

B. 규범 – 특히 행동의 기준 또는 표준에서 유래된 개념이기 때문에 윤리적 의미를 갖는다. 규범은 특정 그룹의 행동에 의미를 제공하는 권위 있는 판단 기준이자 관점이다. 이것은 인간의 핵심 가치, 원리, 행동 기준,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형태로 표현된다. 특히 유대교-기독교 전통에서는 성경 본문의 권위에 확고하게 기초하며, 이와 동시에 전문적인 효과성을 반영한다. 디아코니아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교회됨의 본질 중 하나(필수요소)이기 때문에 규범적이며 교회의 선교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디아코니아는 신앙에 기초하여 능력을 받고 능력을 부여하는 사역이다.

C. 필요지향성 – 사람들의 물질적, 영적 필요를 가리킨다. 이런 필요는 행동 방침을 요구하며, 필요의 원인(무엇이 필요한지 뿐만 아니라 그런 필요가 왜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지를 질문한다)과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필요지향성은 궁핍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삶을 파괴하는 힘들을 예언자적으로 맞서기 위해 능력을 개발하는 과정을 찾고 교회가 사회에 개입할 것을 요구한다. 이 차원에서는 또한 지역 사회의 필요를 함께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회의 필요에 대해 숙고하고,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뒤따른다. 예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볼 때 그들의 가치가 연대와 효과적인 사랑의 관점에서 활성화된다.

10) Carlos Ham, Empowering Diakonia: A Model for Service and Transformation in the Ecumenical Movement and Local Congregations, PhD Thesis - Free University of Amsterdam (Amsterdam, Netherlands, 2015), pp. 15-17.

11) 이 인용문은 우루과이 언론인, 작가, 소설가인 Eduardo Galeano (1940-2015)의 것이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다. “유토피아는 지평선에 놓여 있다. 내가 두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면, 유토피아는 두 걸음 물러난다. 열 걸음 전진하면 유토피아는 재빨리 열 걸음 멀어진다. 내가 아무리 많이 걸어도 결코 그곳에 도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유토피아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를 전진하게 만드는 것이다.” 2014년 1월 5일 현재 <http://www.goodreads.com/quotes/33846-utopia-lies-at-the-horizon-when-i-draw-nearer-by>에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12) 2015년 2월 18일 현재 http://www.forumsocialmundial.org.br/index.php?cd_language=2에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13) Kjell Nordstokke, 'Empowerment in the Perspective of Ecumenical Diakonia', *Diaconia*, 3 (2) (2012), p. 194.

D. 상황적 맥락 – 신학과 실천이 상황 맥락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교회의 디아코니아는 특정한 배경에서 고려되고 능력이 부여되며, 지역사회와 사회 전체-경제적, 정치적 문제 해결-와 환경문제에 헌신한다. 상황적 맥락은 학제적 참여와 다른 행위자들과 학문을 활용하기 위해 현실을 더 정확히 평가하는 데 중요한 내용을 제공한다. 이것은 사람들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능력 개발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정확히 조율하는데 도움이 된다.

E. 변혁 – 디아코니아 행동을 끌어올려 변혁을 통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포용적인 지역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면적인 창조 과정이며, 교회와 다른 변화 주체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실현하고 만물에게 충분한 생명을 제공하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따라서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궁극적인 결과에 책임을 지시며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확장 가능하고 전면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변혁은 하나님에 대한 교회의 믿음을 표현한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신뢰하는 가운데 겸손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 자신의 변혁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는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한 역량 개발 과정으로서 먼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의 종을 발자취를 따름으로써 무력(powerlessness), 즉 자기 비움(kenosis)을 경험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이 다섯 가지 차원을 통해 우리는 실제적이고 현명한 비전을 품고, 사람들의 필요를 효과적이면서도 예언자적으로 대처하는 규범적 입장을 갖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변혁과 정의를 지향하게 된다.

5. 쿠바—실제 경험

쿠바는 독특한 제3세계 국가다. 사회주의국가인 쿠바는 동양과 중앙유럽 지역에 있는 비슷한 체제의 국가와 달리 1959년 풀헨시오 바티스타(Fulgencio Batista) 정권에 맞서 혁명을 성공시킨 후 반세기 이상 여러 가지 단점이 있지만 도덕적인 국가가 되려고 노력해왔다. 아울러 쿠바는 미국 정부가 시행한 가장 긴 금수조치를 겪었다. 세계의 대다수 국가와 유엔 총회 회원국들은 이 금수조치를 비난했다. 베를린 장벽 붕괴된 이후, 그리고 1990년대 초반부터 쿠바가 세속적인 헌법을 채택한 후 교회는 네 개의 벽으로 둘러싸인 성소를 넘어 쿠바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선교를 수행해왔다.

쿠바에서는 다양한 교회¹⁴ 기본적으로 세계교회협의회에 소속되어 있고 쿠바 개신교 신학대학에 학생들을 보내는 역사적 주류 개신교회를 말한다. 하지만 다른 국가에서도 그렇듯이 쿠바에서도 사회참여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은사주의 운동이 성장하고 있다. 가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14) 기본적으로 세계교회협의회에 소속되어 있고 쿠바 개신교 신학대학에 학생들을 보내는 역사적 주류 개신교회를 말한다. 하지만 다른 국가에서도 그렇듯이 쿠바에서도 사회참여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은사주의 운동이 성장하고 있다.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교회들의 디아코니아 선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새로운 동력을 얻고 있다.

(a) 국가와 교회의 점진적 관계 개선을 통해 교회가 선교의 자유를 더 많이 누린다. (b) 경제 위기의 결과 국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c) 국가가 경제 분산 정책을 시행한 결과 시민 사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는 다양한 쿠바 교회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했다. 능력 개발 디아코니아의 다섯 가지 차원이 실제로 적용되는 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1. 비전.

교회라는 정체성 안에 깊이 뿌리박은 비전을 공유한다. 이 비전은 필요한 자극과 디아코니아 행동에 대한 헌신을 제공한다. 내가 보기에 이 비전은 많은 경우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는 쿠바 교회의 도전과제에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고양시킨다.

2. 규범.

다양한 성경 본문을 인정하는 교회들은 궁핍한 사람들을 조건 없이 도와주신 예수의 모범을 따라 가능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취약한 사람을 섬겨야 할 도덕적 의무를 갖는다.

3. 필요.

쿠바 교회는 사람들의 필요에 도전을 받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결하며 삶의 의미와 희망뿐만 아니라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교회 자체도 사회의 이런 필요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로 역량 측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상황적 맥락.

쿠바의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역사적인 교회(주류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는 각자의 상황, 가령 디아코니아 영역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민사회 전체는 가난이 증가하는 시기에 더 강력한 행동주체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이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분별과 용기가 필요하다.

5. 변혁.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디아코니아 영역에서 쿠바에 필요한 몇 가지 변혁의 우선순위가 있다. 이를 테면, 디아코니아 역량 구축 사업 강화, 교회의 연합적 네트워킹 실현과 다종교간 디아코니아 사업 협력, 봉사 분야에서 교회, 국가, 다른 사회 주체 간 대화 활성화가 있다. 길잡이로서 쿠바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말과 행동으로 증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중요하고 결정적인 시기(카이로스)를 살고 있다. 쿠바 교회는 변혁, 역량 개발, 화해를 위한 기관으로서 쿠바 사회에서 적절한 주체가 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정의와 존엄에 대한 의식과 헌신을 일깨우고 있다. 그 결과, 교회는 개척자 역할을 매우 활발하게 수행하여 새로운 과정 또는 길을 발견하여 더 나은 인간과 사회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방향을 재설정하도록 돕는다.

달리 말하면, 이 연구 결과를 숙고할 때 위의 다섯 가지 차원에서 나타나 있듯이 길잡이로서의 디아코니아 개념이 쿠바가 직면한 현재의 중요한 시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 명확하다. 쿠바 교회는 국가나 다른 권력들에게 비굴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섬김으로서 디아코니아를 통해 이런 역할을 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그 결과 쿠바 교회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또한 예언자적 활동에 적극 앞장서서 쿠바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을 찾고 보여주기 위해 능력을 부여받는다. 이 역할은 정당으로서의 역할 아니라 사람들, 특히 ‘가장 작은 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돌보고 소통과 대화와 화해를 위한 다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질그릇 속의 보배”(고후 4:7)이며, 복음의 이상적인 모습이다. 이것이 교회가 변혁적인 정의를 추구하고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쿠바 사회에 실현해야 할 내용이다.

이런 맥락에서 구체적인 예를 소개하고자 한다. 1946년에 설립된 쿠바 개신교 신학대학은 올해 개교 70주년을 기념했다. 가장 두드러진 능력개발 도구 중 하나는 우리의 쿠바 디아코니아 학교(Cuban School for Diakonia)다. 우리는 캠퍼스에서 5일 동안 다섯 번 만나 각 학년별로 또래 학생 그룹과 함께 공부한다. 이들은 대부분 각 교구의 디아코니아 실무자들이다. 우리는 매년 한 그룹에 20명씩, 지금까지 총 60명의 학생을 졸업시켰다. 이 학교의 주요 목적은 역량을 키우고 이론과 실천을 결합하는 것이다. 우리는 신학교가 교회 울타리 안에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해석학과 사회 해석학도 수행할 수 있는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신학교는 기독교 신앙을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 속에서 해석할 수 있는 지역 사회 조정자를 길러 교회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쿠바 디아코니아 학교는 하바나의 마틴 루터 킹 센터와 공동으로 설립되었으며 쿠바교회협의회 디아코니아 부서에서 인력을 지원받고 있다. 쿠바 개신교 신학대학이 에큐메니칼을 지향하기 때문에 다양한 교단의 지역 교회에서 학생들을 선발한다. 디아코니아 학교의 교과 내용 중 하나는 앞에서 설명한 능력 개발 디아코니아 모델을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다.

6. 결론

에큐메니칼 운동에 소속된 교회들이 디아코니아를 이해해 온 흐름을 살펴볼 때 디아코니아는 모든 사람, 특히 가난한 사람, “가장 작은 자”(마 25:40)와 억압당하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위로하고 또한 불의의 근원과 맞서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하나님의 선교¹⁵⁾는 총체적이기 때문에 디아코니아 역시 케리그마(말씀 선포), 디다케(교육), 레이투르기아(예배), 마르튀리아(증언)와 깊이 관련되며 코이노니아(공동체)로 이어진다. 교회의 좁은 울타리를 뛰어넘는 코이노니아는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특징인 이런 기능 또는 활동들의 결과이자 궁극적인 목표다. 그러므로 디아코니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기능들과 함께 포용적이며 정의로운 공동체, 오이코스(oikos), 집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다. 이 집에는 만물이 포함되며 만물은 그 안

15) David Bosch는 1952년 월링겐 국제선교협의회 콘퍼런스에서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개념(이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한 것은 아니다)이 분명하게 나타났다고 말한다. 그는 “선교는 하나님의 본성 자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되었다”고 강조했다. David Bosch,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16th. edn (New York: Orbis Books, 2001), p. 587.

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충만하게 누린다.¹⁶⁾

퀴엘 노르드스토케(Kjell Nordstokke)는 앞에서 언급한 주장과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한다. 그는 이렇게 강조한다. “능력 개발은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그 목표는 자율적이고 이성적 존재로서의 자아실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고귀한 관계 속에서 자존감을 키워 힘을 얻는 것이다.”¹⁷⁾ 능력 개발과 디아코니아 사이의 상호 촉진 관계는 포용적인 공동체 창출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추구한다.

포용적이고 정의로운 공동체 건설은 모든 인류의 책임이다. 이 속에서 교회는 디아코니아 활동을 통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호돌포 게지 넷포(Rodolfo Gaede Neto)는 이렇게 표현했다. “디아코니아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도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따라서 신앙의 자세로-행하는 섬김이다. 디아코니아는 타인을 억압하는 권력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섬김이다. 디아코니아는 분명히 예언자적 차원이 포함된 섬김으로서 불의한 상황을 고발하고 바꾼다.”¹⁸⁾ 이러한 사고의 맥락에서 그는 이어서 말한다. “디아코니아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권력에 대한 포기, 그런 권력에 대한 부정으로 정의된다. 디아코니아는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권세에 대한 고백이며,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겠다는 선언이다. 그러므로 디아코니아는 위계질서를 부정하며 섬기는 능력(power-service)을 단언한다.”¹⁹⁾

정확히 말하자면, 섬기는 능력이라는 합성어는 능력 개발 디아코니아 모델을 매우 정확하게 정의하는 방법이다. 이 모델은 권세로 하여금 사람들을 섬기게 하고, 동시에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여하려고 한다. 이것은 교회가 “신앙의 자세”, 가령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도를 포함하는 변혁의 영성을 통해 성취하려는 것이다. 이 모델은 특히 소외된 사람들이 빈곤에 맞서 극복할 수 있게 하며, 주체가 되어 이 세상에 정의롭고 포용적인 공동체를 건설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든다.

16) 이 사상은 1983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제6차 세계교회협의회 총회 당시 사무총장 Philip A. Potter의 보고서에 기초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므로 에큐메니칼 운동은 하나님의 집(oikos)을 만드는 교회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oikoumene)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살고 증언하고자 노력하는 도구다.”- David Gill, Gathered for Life. Official Report, VI Assembly of the WCC, Vancouver, Canada, 1983 (Geneva, 1983), p. 197.

17) Kjell Nordstokke, “Empowerment in the Perspective of Ecumenical Diaconia,” Diaconia, 3 (2) (2012), p. 124.

18) Rodolfo Gaede Neto, La Diaconía de Jesús. Aporte Para La Fundamentación Teológica de La Diaconía En América Latina(Buenos Aires, Argentina: Oficina Conjunta de Proyectos. Iglesia Evangélica Luterana Unida, 2005), p. 187.

19) Neto, p. 183.

7. 참고문헌

van Beek, Hubert, Sharing Life in a World Community. Official Report of the WCC World Consultation on Koinonia, El Escorial, Spain, 1987 (Geneva: WCC Publications, 1989)

Bosch, David,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16th. edn (New York: Orbis Books, 2001)

Gaede Neto, Rodolfo, La Diaconía de Jesús. Aporte Para La Fundamentación Teológica de La Diaconía En América Latina (Buenos Aires, Argentina: Oficina Conjunta de Proyectos. Iglesia Evangélica Luterana Unida, 2005)

Gill, David, Gathered for Life. Official Report, VI Assembly of the WCC, Vancouver, Canada, 1983 (Geneva, 1983)

Ham, Carlos, Empowering Diaconia: A Model for Service and Transformation in the Ecumenical Movement and Local Congregations, PhD Thesis - Free University of Amsterdam (Amsterdam, Netherlands, 2015)

Ham, Carlos, ‘Historical Review of the Sharing of Resources Within the Ecumenical Movement.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sult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urches and Specialized Ministries / 4 - 10 September 2014, Nkopoloa Lodge, Malawi.’ (Not published)

Kim, Dong-sung, ‘Partnership and Resource Sharing’, Ecumenical Missiology. Changing Landscapes and New Conceptions of Mission, 35 (2016), 259 - 70

Nordstokke, Kjell, ‘Empowerment in the Perspective of Ecumenical Diaconia’, Diaconia, 3 (2012), 185 - 95

Poser, Klaus, Diaconia 2000 - Called to Be Neighbors. Official Report of the WCC World Consultation on Inter-Church Aid, Refugee and World Service, Larnaca, Cyprus, November 1986 (Geneva: World Council of Churches, 1987)

WCC, Diaconia: Creating Harmony, Seeking Justice and Practising Compassion, ed. by Diaconia and Solidarity Team (Geneva, 2005)

WCC, Final Statement of Seminar on Empowerment for Diaconia in Central America and the Spanish-Speaking Caribbean, Matanzas, Cuba - 15-20 July 2012 (Matanzas, Cuba, 2012)

White, Teresa Joan, ‘Diaconia’, in Dictionary of the Ecumenical Movement, ed. by Nicholas Lossky et al, 2nd. edn (Geneva, Switzerland: WCC Publications, 2002) <www.oikoumene.org>

